수탁사업
03-5-1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사업
03-5-1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김형만
공동연구자 : 김미란
전재식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과제명	미래의 직업세계(2003) :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 형 만
연구협력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 사무관 이 상 돈

머리말

경제 · 사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 훈련은 무엇이고,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적성에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직업교육 · 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교육 · 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이 시장기제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

직업세계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시장의 변화도 요구한다.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은 직업세계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준거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다. 따라서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의 결과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학력 청년실업과 전공과 직업간 불일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직업연구 및 분석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만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실증조사 연구는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본 조사는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주기적인 기초통계의 생산이라는 목적 하에 수행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본 원이 공동으로 출판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조사의 핵심 틀이 되는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의 설계 및 조사과정의 타당성과 조사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결과의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조사결과의 원자료를 이용하는데 기초정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조사자료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진행과정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계 전문가 및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의 담당관 여러분, 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의 연구

원 및 조사원들, 그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전문대 및 대학교 관계자와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본원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진을 도와준 연구조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차 례

Ⅰ. 서론 ·····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가. 조사의 필요성 ····· 1
나. 조사의 목적 ····· 2
2. 보고서의 구성 ····· 2

Ⅱ. 모집단과 표본추출 ····· 5
1. 졸업생 조사의 모집단 설정 ····· 5
2. 졸업생 조사의 표본 틀 구성 ····· 9
3. 졸업생 조사의 표본추출 ····· 10
가. 1단계 : 고등교육기관 표본의 추출 ····· 10
나. 2단계 : 졸업생 표본의 추출 ····· 12

Ⅲ. 졸업생 조사를 위한 설문의 구성 ····· 17
1. 설문 구성의 흐름도 ····· 17
2. 설문 항목 ····· 20
가. 인적사항 ····· 20
나. 학과 지원 동기 및 만족도 ····· 20
다. 재학 중 휴학 여부 ····· 21
라. 학원 및 직업훈련 ·자격 ····· 21
마. 졸업 후 진학 편입 입학 ····· 21
바. 구직조건과 구직과정 ····· 22
사. 가족의 배경 ····· 22
아. 경제활동상태 구분 ····· 23
자. 취업구조 ····· 26

차. 미취업구조 26
카. 졸업 후 첫 직장 사항 28
3. 분류체계 및 용어의 정의 29
가. 학과 분류 29
나. 산업 분류 35
다. 직업 분류 35
라. 경제활동상태 구분 36

Ⅳ. 졸업생 조사 결과 39
1.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준비 39
가. 중등단계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이동 39
나.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의 준비 43
2.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49
가. 구직 과정과 구직 강도 49
나. 구직 조건 52
다. 구직 방법 및 구직 기간 59
3.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결과 61
가. 경제활동상태 61
나. 취업구조 65
다. 근로조건 77
라. 노동시장 기준에서 본 학과전망 84

Ⅴ. 요약 및 결론 87

참고문헌 91

[부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설문지 93

표 차 례

<표 Ⅱ-1> 고등교육기관 현황 ····· 5
<표 Ⅱ-2>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분포(2002년도) ····· 6
<표 Ⅱ-3> 성별 · 학교급별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추이 ····· 7
<표 Ⅱ-4> 성별 · 계열별 졸업생 현황(2002년도) ····· 8
<표 Ⅱ-5> 지역별 졸업생 분포(2002년도) ····· 9
<표 Ⅱ-6> 고등교육기관의 표본추출 현황 ····· 11
<표 Ⅱ-7> 지역별 표본추출 현황 ····· 12
<표 Ⅱ-8> 학교급별 ·성별 표본추출 결과 ····· 14
<표 Ⅱ-9> 계열별 · 성별 표본추출 결과(전문대) ····· 15
<표 Ⅱ-10> 계열별 · 성별 표본추출 결과(대학교) ····· 16
<표 Ⅲ-1> 공통 설문항목 구성 ····· 24
<표 Ⅲ-2> 취업자에 해당하는 설문의 구성 ····· 25
<표 Ⅲ-3>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설문의 구성 ····· 27
<표 Ⅲ-4> 졸업 이후 첫 직장에 관한 설문의 구성 ····· 28
<표 Ⅲ-5> 학과(전공) 분류체계 ····· 29
<표 Ⅲ-6> 전문대의 학과분류표 ····· 30
<표 Ⅲ-7> 대학교의 학과분류표 ····· 32
<표 Ⅲ-8> 표준직업분류 ····· 35
<표 Ⅲ-9> 고용직업분류 ····· 36
<표 Ⅳ-1> 지역별 진학현황 ····· 40
<표 Ⅳ-2>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지원의 주된 동기 ····· 41
<표 Ⅳ-3> 대학교 졸업생의 전공지원의 주된 동기 ····· 42
<표 Ⅳ-4> 재학 중 일한 경험과 취업에의 도움 여부 ····· 44
<표 Ⅳ-5>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 ····· 45
<표 Ⅳ-6> 대학교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 ····· 46

<표 Ⅳ-7> 외국어 시험 경험 ····48
<표 Ⅳ-8> 휴학 사유 ····49
<표 Ⅳ-9> 첫 이력서 제출시기 ····50
<표 Ⅳ-10> 이력서 제출회수 ····51
<표 Ⅳ-11>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 면접한 회사수 ····52
<표 Ⅳ-12> 전문대 졸업생의 출신학교와 다른 지역의 구직의사 ····54
<표 Ⅳ-13> 대학교 졸업생의 출신학교와 다른 지역의 구직의사 ····55
<표 Ⅳ-14> 졸업생들의 의중임금 분포 : 연봉기준 ····56
<표 Ⅳ-15> 졸업생들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 연봉기준 ····57
<표 Ⅳ-16> 의중임금과 제시임금간 격차 ····58
<표 Ⅳ-17> 직장 선택 조건(1순위 기준) ····59
<표 Ⅳ-18> 현 직장 구직방법 ····60
<표 Ⅳ-19> 전문대 졸업자의 계열별 경제활동상태 ····63
<표 Ⅳ-20>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경제활동상태 ····64
<표 Ⅳ-21>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 · 직업 취업구조 행렬 ····66
<표 Ⅳ-22>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 · 직업 취업구조 행렬 ····70
<표 Ⅳ-23> 전문대 졸업자의 계열별 직장유형 ····74
<표 Ⅳ-24>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직장유형 ····75
<표 Ⅳ-25> 지역별 취업현황 ····77
<표 Ⅳ-26> 성별 학교 · 급별 임금 격차 ····78
<표 Ⅳ-27> 전문대 졸업자의 계열별 임금수준 ····79
<표 Ⅳ-28>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임금수준 ····80
<표 Ⅳ-29>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과 직무간의 관계 ····82
<표 Ⅳ-30>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과 직무와의 관계 ····83
<표 Ⅳ-31> 전문대 졸업생들이 본 향후 3년 간 학과전망 ····85
<표 Ⅳ-32> 대학교 졸업생들이 본 향후 3년 간 학과전망 ····86

그 림 차 례

[그림 Ⅱ-1] 연도별 학교수 현황 ····· 11
[그림 Ⅲ-1]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노동이동 경로 ····· 17
[그림 Ⅲ-2] 조사흐름도 ····· 19
[그림 Ⅲ-3] 경제활동상태 분류 ····· 37
[그림 Ⅳ-1] 학교 · 급별 취업기간 ····· 61

Ⅰ.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조사의 필요성

지금과 같이 경제 · 사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 훈련은 무엇이고,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적성에 가장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직업교육 · 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한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교육 · 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이 시장기제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전공과 직업 또는 직무간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등 교육시장과의 괴리 현상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빠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직업에 관한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심층적인 직업연구 및 직무분석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의 이러한 직업세계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시장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은 직업세계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준거를 도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의 결과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교육 · 훈련의 선택이나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A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형태의 경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B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위, 자격 등이 필요하고 기업에 입사한 후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교육시장에서 움직임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도 동시에 포착하면서 인력공급 수준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은 생애 직업을 찾기까지 끊임없는 직업탐색(job search)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경기상황에 따라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의 추출을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시계열 분석을 필요로 한다.

나.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주기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성된 기초통계의 결과는 본 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출판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1)]」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된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의 핵심 틀이 되는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의 설계 및 조사과정의 타당성과 조사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2. 보고서의 구성

본 조사를 이용한 보고서의 구성은 위의 조사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제Ⅱ장에서는 졸업생 조사의 실시를 위한 모집단(population)의 설정과 표본틀(sampling frame)의 구성, 그리고 표본추출(sampling)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하나의 조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Ⅲ장에서는 본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의 구성과 조사기준, 그리고 학과분류 기준 등을 설명한다. 이때 설문항목 및 조사기준의 마련은 주로 통계청과 노동부 등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와의 연결성을 위하여 기준을 통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본 조사의 결과를 기초통계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한다. 학생이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 즉 '준비-이행-결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이

1)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이 2002년 말에 초판 발행되었다.

과정을 골격으로 이행(transition)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기초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향후 본 조사가 보다 내실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 및 대안을 마련한다.

Ⅱ. 모집단과 표본추출

1. 졸업생 조사의 모집단 설정

본 조사는 전국의 전문대 및 대학교에서 2002년도 2월에 졸업한 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2002년도 졸업생만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2003년도 2월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및 노동시장내의 이동이 그리 크지 않으며, 반면에 2002년도 이전 졸업생의 경우는 과거에 대한 회고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기억을 못하고 틀린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표 Ⅱ-1>은 2002년 현재 전문대 및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총 376개 대학이며, 이중 전문대는 159개, 대학교 163개(분교 19개교 제외), 교육대는 11개, 그리고 방송통신대 및 산업대, 기술대 등 나머지 대학들은 43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1> 고등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소)

	전체	전문대	일반대학교	교육대	방송통신대	산업대	기술대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2000	372	158	161	11	1	19	1	4	17
2001	374	158	162	11	1	19	1	4	18
2002	376	159	163	11	1	19	1	4	18

주 : 고등교육기관 전체는 분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Ⅱ-2>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분포(2002년도)

(단위: 개소, %)

	합계	전문대학	대학교
전체	333 (100.0)	159 (100.0)	174 (100.0)
서울특별시	51 (15.3)	12 (7.5)	39 (22.4)
부산광역시	23 (6.9)	11 (6.9)	12 (6.9)
대구광역시	10 (3.0)	7 (4.4)	3 (1.7)
인천광역시	10 (3.0)	5 (3.1)	5 (2.9)
광주광역시	15 (4.5)	7 (4.4)	8 (4.6)
대전광역시	13 (3.9)	5 (3.1)	8 (4.6)
울산광역시	3 (0.9)	2 (1.3)	1 (0.6)
경 기 도	58 (17.4)	34 (21.4)	24 (13.8)
강 원 도	18 (5.4)	9 (5.7)	9 (5.2)
충청 북도	15 (4.5)	6 (3.8)	9 (5.2)
충청 남도	20 (6.0)	8 (5.0)	12 (6.9)
전라 북도	20 (6.0)	11 (6.9)	9 (5.2)
전라 남도	21 (6.3)	11 (6.9)	10 (5.7)
경상 북도	34 (10.2)	18 (11.3)	16 (9.2)
경상 남도	16 (4.8)	10 (6.3)	6 (3.4)
제 주 도	6 (1.8)	3 (1.9)	3 (1.7)

주 : 1) 고등교육기관 중 방송통신대, 기술교육대, 산업대, 각종학교, 대학원 대학 등은 제외함.
2) 대학교에는 교육대학이 포함됨.
3)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연보**.

<표 Ⅱ-2>는 지역별 학교분포 현황을 전문대 및 대학교, 교육대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얼마나 유치하고 있느냐는 양적 측면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인프라를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 전체 전문대 및 대학교 중 17.4%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15.3%, 경상북도 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광역시(0.9%)와 제주

도(1.8%) 등의 지역은 양적 측면에서의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양적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학교는 서울시(22.4%)에, 전문대학은 경기도(21.4%)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졸업생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3>에서 나타나듯이 2002년도 2월에 우리나라의 376개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졸업생수는 약 54만명에 이르며, 이 중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52.4%인 28만명이고, 남성은 47.6%인 26만여명 수준이다. 성별 분포를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전문대의 경우는 전체 졸업생 중에서 여자 졸업생의 비중이 남자 졸업생의 비중을 초과하는 '여초현상'(남성 43.2%, 여성 56.8%)이 나타나는 반면에 4년제 대학교의 경우는 남자 졸업생의 비중이 여자 졸업생의 비중을 초과하는 '남초현상'(남성 51.8%, 여성 48.2%)을 보이고 있다.

<표 Ⅱ-3> 성별·학교급별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추이

(단위: 명)

		전체	전문대	대학교	교육대	방송통신대	산업대	기술대	각종학교
전체	2000	488,817	223,489	214,498	5,233	22,477	21,266	-	1,854
	2001	525,010	232,972	239,702	5,195	21,512	24,389	-	1,240
	2002	539,533	239,114	244,852	5,072	25,059	24,653	95	688
남자	2000	237,095	99,452	113,573	1,107	6,964	15,021	-	978
	2001	255,440	102,501	127,259	1,188	6,168	17,547	-	777
	2002	256,745	103,303	126,879	1,423	7,326	17,230	89	495
여자	2000	251,722	124,037	100,925	4,126	15,513	6,245	-	876
	2001	269,570	130,471	112,443	4,007	15,344	6,842	-	463
	2002	282,788	135,811	117,973	3,649	17,733	7,423	6	19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또한 졸업생수 현황을 계열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Ⅱ-4>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전문대 및 대학교(교육대학 포함)를 졸업한 488천명 중 자연계가 212천명(43.4%)으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사회계 24.3%, 예체계 10.6%, 인문계 9.8% 등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자연계의 비중의 경우 남자(58.4%)가 여자(29.8%)보다 거의 2배 가량 높은 반면에 나머지 인문계와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등은 여자(각각 인문계 13.1%, 의약계 8.5%, 예체계 13.6%, 사범계 9.2%)가 남자(각각 인문계 6.2%, 의약계 3.4%, 예체계 7.2%, 사범계 2.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 성별 · 계열별 졸업생 현황(2002년도)

(단위: 명)

	합계			전문대			대학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489,048	231,605	257,433	239,114	103,303	135,811	249,924	128,302	121,622
인 문 계	48,043	14,403	33,640	1,2043	2,767	9,276	36,000	11,636	24,364
사 회 계	118,856	52,360	66,496	54,115	17,776	36,339	64,741	34,584	30,157
자 연 계	212,008	135,214	76,794	113,795	69,449	44,346	98,213	65,765	32,448
의 약 계	29,787	7,858	21,929	19,035	3,261	15,774	10,752	4,597	6,155
예 체 계	51,630	16,680	34,950	29,505	9,866	19,639	22,125	6,814	15,311
사 범 계	28,714	5,090	23,624	10,621	184	10,437	18,093	4,906	13,187

주 : 대학교 중 방송통신대, 산업대, 기술대, 각종학교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연보**.

지역별로는 <표 Ⅱ-5>에서 보듯이 고등교육기관 분포 현황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졸업생 분포가 17.7%로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시 17.5%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과 대학교로 구분하여 보았을 경우에도 고등교육기관의 분포 현황과 비슷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표 Ⅱ-5> 지역별 졸업생 분포(2002년도)

(단위: 명, %)

	합계	전문대학	대학교
전체	489,038 (100.0)	239,114 (100.0)	249,924 (100.0)
서울특별시	85,592 (17.5)	18,144 (7.6)	67,448 (27.0)
부산광역시	46,172 (9.4)	21,552 (9.0)	24,620 (9.9)
대구광역시	25,593 (5.2)	17,036 (7.1)	8,557 (3.4)
인천광역시	16,018 (3.3)	10,370 (4.3)	5,648 (2.3)
광주광역시	22,135 (4.5)	11,056 (4.6)	11,079 (4.4)
대전광역시	21,484 (4.4)	9,921 (4.1)	11,563 (4.6)
울산광역시	6,130 (1.3)	3,616 (1.5)	2,514 (1.0)
경 기 도	86,777 (17.7)	58,081 (24.3)	28,696 (11.5)
강 원 도	19,857 (4.1)	9,183 (3.8)	10,674 (4.3)
충청 북도	19,255 (3.9)	8,307 (3.5)	10,948 (4.4)
충청 남도	24,435 (5.0)	8,470 (3.5)	15,965 (6.4)
전라 북도	24,503 (5.0)	10,220 (4.3)	14,283 (5.7)
전라 남도	17,478 (3.6)	11,101 (4.6)	6,377 (2.6)
경상 북도	41,880 (8.6)	22,988 (9.6)	18,892 (7.6)
경상 남도	25,212 (5.2)	14,717 (6.2)	10,495 (4.2)
제 주 도	6,517 (1.3)	4,352 (1.8)	2,165 (0.9)

주 : 1) 방송통신대, 기술교육대, 산업대, 각종학교, 대학원 대학 등은 제외.
2) 대학교에는 교육대학이 포함됨.
3)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연보**.

2. 졸업생 조사의 표본 틀 구성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취업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틀(sampling frame)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개발원(KEDI)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교육통계연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본 틀을 구성한다. 단,

방송통신대와 산업대, 각종학교와 대학원대학은 특수목적하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 연구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연구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기술대는 2000년 3월에 정석대학이 최초로 설립되어 졸업생이 2002년에는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생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자료의 특성이 전문대 및 일반대학교, 교육대학교 졸업생들과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 포함된 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 전문대 159개교와 4년제 일반대학교 163개교, 교육대학교 11개교 등 총 333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2002년도에 졸업한 489,038명이 표본 틀로 구성된다.

3. 졸업생 조사의 표본추출

본 조사는 표본추출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즉, 1단계는 학교기관에 대한 추출방법으로서 지역과 학교 설립 년도, 그리고 국 · 공 · 사립 여부를 고려하여 군집추출방법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는 졸업생에 대한 추출방법으로서 1단계에서 추출된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별 · 학과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층화계층 표본추출방법을 실시하였다.

가. 1단계 : 고등교육기관 표본의 추출

고등교육기관은 앞서 정한 표본 틀에서 지역과 학교 · 급, 그리고 학과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대 84개교와 대학교 76개교(교육대 11개교 포함) 등 총 160개 고등교육기관을 1차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졸업생 명부의 입수 과정에서 26개교(전문대 11개교, 대학교 15개교)의 졸업생 명부가 확보가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134개교의 전문대 및 대학교가 졸업생조사의 대상 고등교육기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표 Ⅱ-6>에서 보듯이 표본추출률은 표본 틀로 구성된 333개교 중 40.2%(총 고등교육기관 376개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40.2%)에 해당한다. 이는 2001년도의 예비조사시 2.4%와 2001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002년도 조사의 20.8%에 비하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 · 급별로는 전문대가 73개교로서 표본추출률 45.9%를, 대학교가 61개교로서 35.1%의 표본추출률을 기록하였다.

<표 Ⅱ-6> 고등교육기관의 표본추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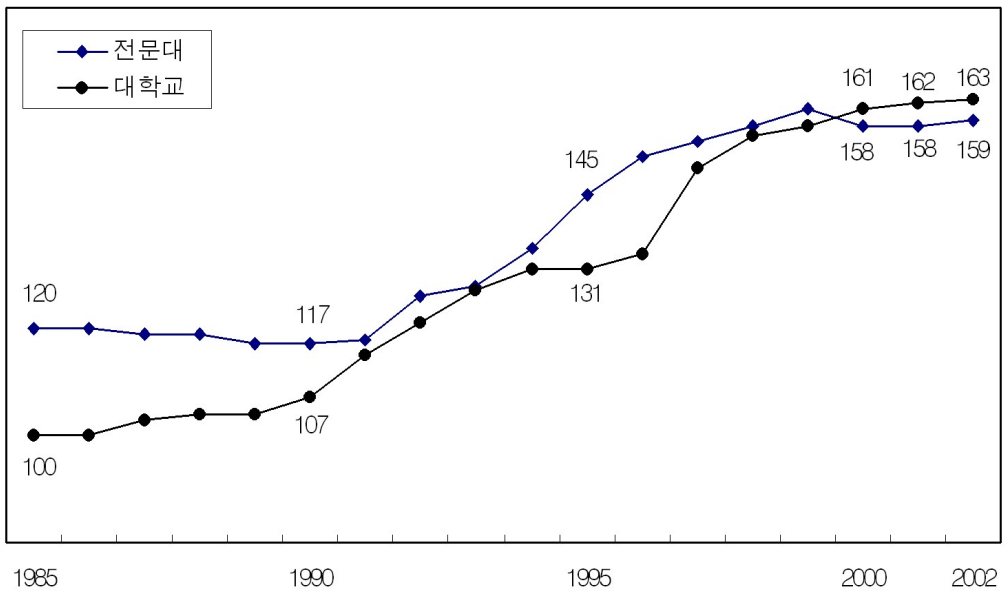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예비조사(2001년)			1차 년도(2002년)			2차 년도(2003년)		
	전체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문대	대학교
모집단수	330	158	172	331	158	173	333	159	174
표 본 수	8	4	4	69	31	38	134	73	61
추 출 률	2.4	2.5	2.3	20.8	19.6	22.0	40.2	45.9	35.1

주: 대학교에는 4년제 일반대학교와 교육대학교가 포함됨.

<표 Ⅱ-7>은 추출된 학교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본에 포함되는 학교가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립연도를 1980년대 이전으로 제한함으로써 도 단위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들 학교가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이다(그림 Ⅱ-1 참조).

(단위 : 개소)



[그림 Ⅱ-1] 연도별 학교수 현황

<표 Ⅱ-7> 지역별 표본추출 현황

(단위: 개소, %)

	합계		전문대학		대학교	
	모집단수	표본수	모집단수	표본수	모집단수	표본수
전체	333	134	159	73	174	61
서울특별시	51	33	12	12	39	21
부산광역시	23	15	11	8	12	7
대구광역시	10	6	7	4	3	2
인천광역시	10	4	5	3	5	1
광주광역시	15	7	7	6	8	1
대전광역시	13	8	5	5	8	3
울산광역시	3	3	2	2	1	1
경 기 도	58	20	34	14	24	6
강 원 도	18	5	9	1	9	4
충청 북도	15	4	6	0	9	4
충청 남도	20	4	8	2	12	2
전라 북도	20	8	11	5	9	3
전라 남도	21	2	11	1	10	1
경상 북도	34	5	18	4	16	2
경상 남도	16	6	10	4	6	2
제 주 도	6	4	3	2	3	2

주 : 1) 고등교육기관 중 방송통신대, 기술교육대, 산업대, 각종학교, 대학원 대학 등은 제외함.
2) 대학교에는 교육대학이 포함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통계연보**.

나. 2단계 : 졸업생 표본의 추출

1단계를 통하여 추출된 13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2002년도 졸업생 명부를 요청한 결과 255,127명의 명부가 확보되었으며, 이 중 나이와 입학 년도, 학과분류 불가능,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을 통제하고 최종적으로 198,722명의 명단이 정

리되었다.[2] 세부적인 졸업생 명단 입수 현황 및 명부 추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대 졸업생명단 입수 현황을 보면, 표본으로 선정된 73개의 전문대에서 총 133,713명의 명부를 보내왔으며, 이중 ①나이 30세 이상(1973년생 이전 출생자),[3] ②2001년도 이후 입학자,[4] ③전화번호 없는 자, ④학과분류 불가능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5,926명의 졸업생 표본 틀 명단이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생명단 입수 현황을 보면, 표본으로 선정된 61개의 대학에서 총 121,414명의 명부를 보내왔으며, 이중 ①나이 30세 이상(1973년생 이전 출생자), ②1999년도 이후 입학자, ③전화번호 없는 자, ④학과분류 불가능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8,796명의 졸업생 표본 틀 명단이 구성되었다.

198,722명의 졸업생 표본 틀 중 본 조사의 예산을 고려하여 14,000명의 추출을 목적으로 (전문대 6,500명, 대학교 7,500명) 학과와 성별을 고려하여 층화계층추출방법에 의하여 목표표본 1개 그룹과 대체표본 4개 그룹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표본추출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4,026명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전문대 졸업생은 6,483명, 대학교 졸업생은 7,543명이다.

<표 Ⅱ-8>은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 · 급별과 성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남자 대학교 졸업생의 응답자 비중이 전체 응답자 중 29.8%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자 전문대 졸업생 28.4%, 여자 대학교 졸업생 24.0%, 남자 전문대 졸업생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집단의 분포와도 상당 수준 일치하는 비중이다.

---

2) 이는 표본 틀로 구성한 2002년도 졸업생 489,048명 중 40.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3)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졸업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본 조사에서 학교 졸업 후 편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 졸업생 중 이미 편입의 경험이 있는 경험한 자를 제외할 목적으로 입학년도를 통제하였다. 즉, 전문대의 경우 2002년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년 이전에 입학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학년도가 2001년 이후인 자들은 편입자들로 간주하고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2년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1998년에 입학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학년도가 1999년 이후인 자들은 편입자들로 간주하고 분석대상에서 역시 제외하였다.

<표 Ⅱ-8> 학교급별 ·성별 표본추출 결과

(단위: 명, %)

	계	전문대	대학교
계	14,026(100.0)	6,483(46.2)	7,543(53.8)
남 자	6,677(47.6)	2,503(17.8)	4,174(29.8)
여 자	7,349(52.4)	3,980(28.4)	3,369(24.0)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중임.

다음으로 계열별[5] 표본추출 결과는 <표 Ⅱ-9>와 <표 Ⅱ-10>에 제시하였다. 본 표에서 보듯이 전문대의 경우, 학과(전공) 중분류 수준에서 컴퓨터 · 통신이 전체 6,483명 중 1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의 경영 · 경제가 12.2%, 예체능계열의 디자인 7.2% 등의 순서다. 대학교의 경우는 사회계열의 경제 · 경영이 전체 7,543명 중 11.5%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문계열의 언어 · 문학 9.3%, 자연계열의 생물 · 화학 · 환경 7.4% 등의 순서다.

다만, 전문대의 경우 법률, 특수교육, 교통 · 운송, 연극 · 영화 등이, 대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등 일부 학과의 경우는 표본 틀 구성단계에서 졸업생수의 부족으로 추출된 표본 수가 다소 적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5) 한국교육개발원의 『2003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의 학과 중분류 체계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Ⅱ-9> 계열별 · 성별 표본추출 결과(전문대)

(단위: 명, %)

대분류	중분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6,483 (100.0)	2,503 (100.0)	3,980 (100.0)
인문계열	언어 · 문학	387 (5.97)	45 (1.80)	342 (8.59)
	인문과학	64 (0.99)	4 (0.16)	60 (1.51)
사회계열	경영 · 경제	792 (12.22)	218 (8.71)	574 (14.42)
	법률	14 (0.22)	4 (0.16)	10 (0.25)
	사회과학	349 (5.38)	51 (2.04)	298 (7.49)
교육계열	교육일반	23 (0.35)	1 (0.04)	22 (0.55)
	유아교육	263 (4.06)	1 (0.04)	262 (6.58)
	특수교육	15 (0.23)	-	15 (0.38)
공학계열	건축	305 (4.70)	209 (8.35)	96 (2.41)
	토목 · 도시	134 (2.07)	128 (5.11)	6 (0.15)
	교통 · 운송	11 (0.17)	10 (0.40)	1 (0.03)
	기계 · 금속	355 (5.48)	337 (13.46)	18 (0.45)
	전기 · 전자	407 (6.28)	357 (14.26)	50 (1.26)
	정밀 · 에너지	41 (0.63)	9 (0.36)	32 (0.80)
	소재 · 재료	63 (0.97)	36 (1.44)	27 (0.68)
	컴퓨터 · 통신	953 (14.70)	416 (16.62)	537 (13.49)
	산업	37 (0.57)	33 (1.32)	4 (0.10)
	화공	54 (0.83)	40 (1.60)	14 (0.35)
	기타	105 (1.62)	81 (3.24)	24 (0.60)
자연계열	농림 · 수산	20 (0.31)	11 (0.44)	9 (0.23)
	생물 · 화학 · 환경	153 (2.36)	82 (3.28)	71 (1.78)
	생활과학	361 (5.57)	38 (1.52)	323 (8.12)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42 (0.65)	19 (0.76)	23 (0.58)
의약계열	간호	196 (3.02)	-	196 (4.92)
	치료 · 보건	476 (7.34)	161 (6.43)	315 (7.91)
예체능계열	디자인	469 (7.23)	132 (5.27)	337 (8.47)
	응용예술	247 (3.81)	36 (1.44)	211 (5.30)
	무용 · 체육	73 (1.13)	36 (1.44)	37 (0.93)
	미술 · 조형	22 (0.34)	2 (0.08)	20 (0.50)
	연극 · 영화	11 (0.17)	5 (0.20)	6 (0.15)
	음악	41 (0.63)	1 (0.04)	40 (1.01)

주 : ( )안의 수치는 성별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중임.

<표 Ⅱ-10> 계열별 · 성별 표본추출 결과(대학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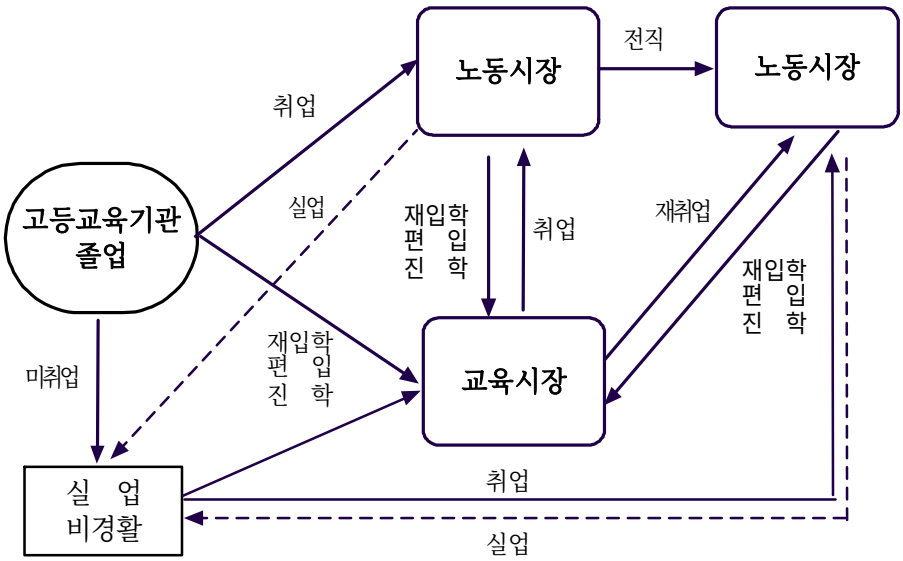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7,543 (100.0)	4,174 (100.0)	3,369 (100.0)
인문계열	언어 · 문학	698 (9.25)	242 (5.80)	456 (13.54)
	인문과학	403 (5.34)	170 (4.07)	233 (6.92)
사회계열	경영 · 경제	864 (11.45)	524 (12.55)	340 (10.09)
	법률	137 (1.82)	102 (2.44)	35 (1.04)
	사회과학	532 (7.05)	225 (5.39)	307 (9.11)
교육계열	교육일반	78 (1.03)	15 (0.36)	63 (1.87)
	유아교육	41 (0.54)	1 (0.02)	40 (1.19)
	특수교육	19 (0.25)	-	19 (0.56)
	초등교육	36 (0.48)	10 (0.24)	26 (0.77)
	중등교육	394 (5.22)	151 (3.62)	243 (7.21)
공학계열	건축	175 (2.32)	130 (3.11)	45 (1.34)
	토목 · 도시	121 (1.60)	107 (2.56)	14 (0.42)
	교통 · 운송	143 (1.90)	127 (3.04)	16 (0.47)
	기계 · 금속	290 (3.84)	278 (6.66)	12 (0.36)
	전기 · 전자	441 (5.85)	406 (9.73)	35 (1.04)
	정밀 · 에너지	23 (0.30)	22 (0.53)	1 (0.03)
	소재 · 재료	211 (2.80)	183 (4.38)	28 (0.83)
	컴퓨터 · 통신	358 (4.75)	268 (6.42)	90 (2.67)
	산업	115 (1.52)	98 (2.35)	17 (0.50)
	화공	174 (2.31)	136 (3.26)	38 (1.13)
	기타	65 (0.86)	59 (1.41)	6 (0.18)
자연계열	농림 · 수산	114 (1.51)	76 (1.82)	38 (1.13)
	생물 · 화학 · 환경	556 (7.37)	327 (7.83)	229 (6.80)
	생활과학	266 (3.53)	42 (1.01)	224 (6.65)
	수학 · 물리	101 (1.34)	50 (1.20)	51 (1.51)
	천문 · 지리	287 (3.80)	162 (3.88)	125 (3.71)
의약계열	의료	54 (0.72)	47 (1.13)	7 (0.21)
	간호	39 (0.52)	-	39 (1.16)
	약학	59 (0.78)	18 (0.43)	41 (1.22)
	치료 · 보건	43 (0.57)	9 (0.22)	34 (1.01)
예체능계열	디자인	186 (2.47)	51 (1.22)	135 (4.01)
	응용예술	69 (0.91)	17 (0.41)	52 (1.54)
	무용 · 체육	96 (1.27)	49 (1.17)	47 (1.40)
	미술 · 조형	149 (1.98)	36 (0.86)	113 (3.35)
	연극 · 영화	21 (0.28)	9 (0.22)	12 (0.36)
	음악	185 (2.45)	27 (0.65)	158 (4.69)

주 : ( )안의 수치는 성별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중임.

III. 졸업생 조사를 위한 설문의 구성

1. 설문 구성의 흐름도

본 조사의 설문지는 첫째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및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둘째로 「전공(학과)-직업」간 연계 관계를 파악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인력 및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로는 조사의 결과를 세부 전공별로 분석하여 졸업생들의 이행의 결과를 진로 및 직업 선택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III-1]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노동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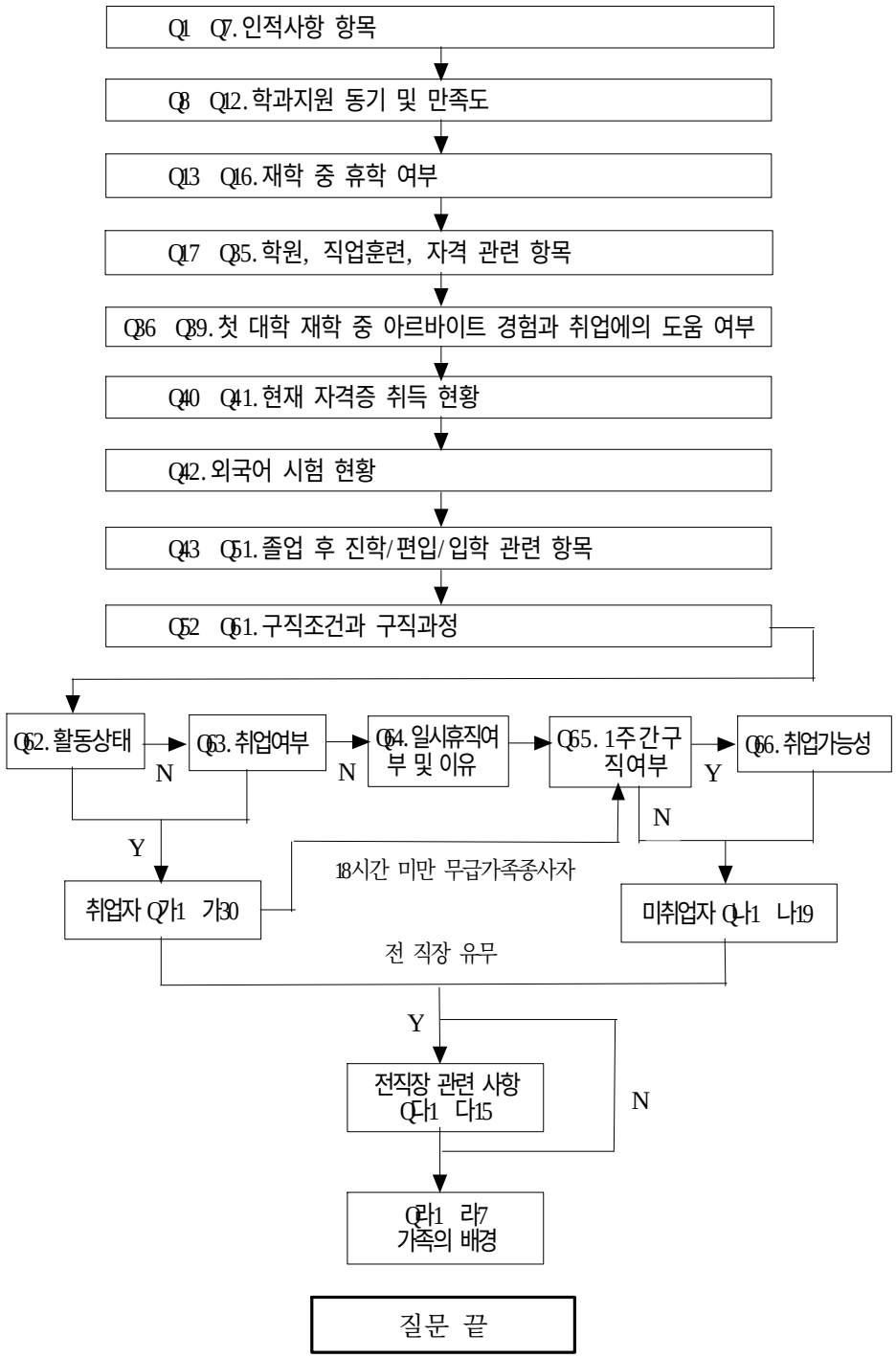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전문대 및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이행경로는 [그림 III-1]과 같다.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취업 또는 실업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일부 졸업생들은 타 대학 또는 타 학과에 편입 또는 재입학 하거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 진학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교육시장에 잔류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노동시장에서 교육시장으로, 반대로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진행된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노동력 중 일부는 취업 상태 또는 미취업 상태에서 교육시장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교육시장에 계속 잔류했던 자는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한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력 중 일부는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실업 상태로 이동하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며, 또 다른 일부는 다시 교육시장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상과 같은 노동력의 흐름을 볼 때,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설문 흐름도 이러한 이행 경로를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III-2]에서 보듯이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준비→과정→결과'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의 준비단계에서는 학과 선택, 직업교육 · 훈련 이수, 아르바이트, 자격증, 외국어 시험 등 개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신호체계(signaling)[6]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행과정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시그널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업기간, 취업에의 도움 여부, 직장의 안착도 등의 통해서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한 결과에서는 졸업생들이 어느 직장으로 취업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직장의 안정성은 높은지를 파악하는 질문 흐름으로 구성된다.

6) 개인의 능력을 관찰하는 특징들에는 크게 성, 연령 등 바꿀 수 없는 특징(index)과 학력, 성적 등 노력에 따라서 바꾸어 질 수 있는 특징(signal)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 Spence(1973) 참조.



[그림 III-2] 조사흐름도

2. 설문 항목

설문 항목은 크게 11개의 대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적사항, 학과 지원 동기 및 만족도, 재학 중 휴학 여부, 학원 · 직업훈련 · 자격 관련 항목, 졸업 후 진학 · 편입 · 입학 관련 내용, 구직조건과 구직과정, 가족의 배경,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 취업자 항목, 미취업자 항목, 졸업 이후 첫 직장에 관한 항목, 그리고 가족의 배경 항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인적사항, 학과지원 동기 및 만족도, 재학 중 휴학 여부, 학원 및 직업훈련 ·자격관련 항목, 졸업 후 진학 · 편입 ·입학관련 항목, 구직조건과 구직과정, 가족의 배경, 그리고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은 공통항목으로서 기본적인 개인 신상 파악과 아울러 졸업 전공과 진학 전공 혹은 직장의 일과 전공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이하 <표 III-1> 참조). 구체적인 설문지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가. 인적사항

인적사항 항목은 대학입학 시기,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 학점, 혼인상태, 병역여부, 그리고 출신고교의 계열 및 소재지를 묻는 7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단, 설문 응답자에 대해 졸업학교, 졸업학과, 학교소재지, 성별, 출생년도 등은 설문시작 전에 이미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였다.

나. 학과 지원 동기 및 만족도

학과 지원 동기 및 만족도는 전공지원(선택)의 주된 동기가 무엇이었으며, 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3년 후와 10년 후 전공학과의 향후 전망 등 5가지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학 진학시 학과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가를 보기 위함이며,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지, 향후 본인의 학과 전망이 어떠한지를 졸업생 당사자에게 묻기 위함에 있다. 이와 아울러 현재의 기술변화 수준을 고려할 때 전공한 학과의 교과과정이 유의미한지를 알고자 했다.

다. 재학 중 휴학 여부

재학 중 휴학 여부는 최근 취업준비를 위해 1년을 휴학하는 이른바 5학년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현황 파악과 휴학의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에는 휴학 경험 회수 및 휴학의 주된 이유 등 4가지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학원 및 직업훈련 ·자격

학원 및 직업훈련 ·자격 관련 항목은 첫 대학 재학 중 학원 및 직업훈련 이수 경험과 이수 이유, 그리고 직업훈련 경험의 취업에의 도움 여부, 첫 대학 졸업 후 학원 및 직업훈련 이수 경험과 이수 이유, 그리고 직업훈련 경험의 취업에의 도움 여부, 첫 대학 재학 중 일을 한 경험과 취업에의 도움 여부, 현재 자격증 취득현황, 그리고 외국어 시험 현황 등 총 9개의 중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중항목을 다시 2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항목은 응답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시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함에 있다. 실제로 교육 · 훈련 및 자격은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동의 촉진과 새로운 업종이나 직종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해서는 자격증 명칭과 자격증 등급, 취득 년 월, 자격 종류, 그리고 취득 당시 전공일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한편, 개인의 외국어 시험 경험 유무와 구체적으로 점수를 질문함으로써 개인의 신호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하였다.

마. 졸업 후 진학 ·편입 ·입학

졸업 후 진학 ·편입 ·입학 관련 항목은 학교세계에서 학교세계로의(school to school) 잔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최근 졸업자들 가운데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편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

이다. 설문항목은 현재의 학교 재학 여부, 현재의 교육상황, 추가교육(과정)의 주된 이유, 전공선택의 주된 이유, 그리고 전공변경의 주된 이유 등 크게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이중 현재의 교육상황 항목은 다시 재학 중 학교·급 수준, 학교 진학방법과 수학상태, 학과, 그리고 학교소재지를 질문한다.

바. 구직조건과 구직과정

구직조건과 구직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나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분석하는 것을 질문의 골격으로 정한다. 본 항목은 구체적인 취업 준비 시작 시기, 졸업 이후 6개월 동안 구직 활동 경험 여부, 구직한 일자리의 종류, 출신대학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직장에 출근 여부, 구직기간 중 용돈이나 생활비의 조달 방법, 첫 직장을 얻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회수, 졸업 전후 이력서를 내기 시작한 시기,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 면접한 회사수, 구직 당시 희망 임금 수준, 그리고 구직 당시 회사가 제시한 임금 수준 등 10개의 세부설문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직활동의 적극성이 과연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최근 청년층 실업발생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수준과 기업의 제시임금(offered wage) 수준은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중 주요한 요인이다.

사. 가족의 배경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의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가족의 배경이다. Parkin(1971)은 어느 사회나 특권적 지위를 점한 계층은 자신의 자녀세대가 자신들과 비슷한 계층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경제적 자원의 동원에 있어서의 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계층의 강한 세습화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세대간-세대내 이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방하남 외(2002)는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연구를 통해서 부친의 학력이 본인의 학력으로, 본인의 초직으로, 본인의 현직으로 이어지는 지위획득과정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고 있다.

가족의 배경 항목은 부모의 학력, 부모의 나이, 부모의 직업, 가구소득 등 7가지의 세부설문으로 구성된다.

아. 경제활동상태 구분

경제활동상태 구분에 관한 항목은 주로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류방식을 택하였다. 즉, 지난 1주간의 상태를 질문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나누고 다시 1주간의 구직여부와 취업가능성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미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이는 국가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택함으로써 국가통계와의 상호 연결성을 갖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경제활동상태별로 취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실업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일부 존재한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의 범위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 후,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였다.

<표 III-1> 공통 설문항목 구성

조사영역	항목수	세부항목
인적사항 항목	7	복수(이중)전공 부전공 학점 혼인상태 병역여부 출신고교 계열 및 소재지
학과지원 동기 및 만족도	5	전공지원(선택)의 주된 동기 전공만족도 교과과정 만족도 향후 전공 전망
재학 중 휴학 여부 항목	4	재학 중 휴학 여부 휴학 이유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휴학사유
학원, 직업훈련, 자격관련 항목	26	첫 대학 재학 중 학원/ 직업훈련 이수 경험 첫 대학 재학 중 학원/ 직업훈련을 받은 주된 이유 첫 대학 재학 중 학원/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의 도움 여부 첫 대학 졸업 후 학원/ 직업훈련 이수 경험 첫 대학 졸업 후 학원/ 직업훈련을 받은 주된 이유 첫 대학 졸업 후 학원/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의 도움 여부 첫 대학 재학 중 일을 한 경험과 취업에의 도움 여부 현재 자격증 취득 현황 외국어 시험 현황
졸업 후 진학/ 편입/ 재입 학관련 항목	9	현재의 학교 재학여부 현재의 교육상황: 재학중 학교, 학교진학 방법, 수학상태, 학과, 학교소재지 추가교육(과정)의 주된 이유 전공선택의 주된 이유 전공변경의 주된 이유
구직조건과 구직과정	10	구체적인 취업 준비 시작 시기 졸업 이후 6개월 동안 구직 활동 경험 여부 구직한 일자리의 종류 출신대학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직장에 출근 여부 구직기간 중 용돈이나 생활비의 조달 방법 첫 직장을 얻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횟수 졸업 전/ 후 이력서를 내기 시작한 시기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면접한 회사의 갯수 구직 당시 희망 임금 수준 구직 당시 회사가 제시한 임금 수준
가족의 배경	7	부모의 학력 부모의 나이 부모의 직업 소득
경제활동상태 구분항목	4	지난 1주일간의 활동사항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한 활동여부(본인 혹은 가구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여부 지난주의 구직활동여부

<표 III-2> 취업자에 해당하는 설문의 구성

조사영역	항목수	세부항목
취업자항목	30	<이행과정> ·지난 주의 총 근무시간 ·현 직장의 시작시기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 ·구직방법 ·선택이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황> ·산업분류 ·사업장 소재지(부서) ·직업분류 ·사업체 규모 ·직위 ·종사상 지위 ·직장의 조직형태 ·직무 만족도 ·직무 불만족의 주된 이유 ·(세전)총소득 ·지원 교육 현황 ·교육훈련기간 <직장과 전공과의 관계> ·현재 직무와 학교전공과의 관련성 ·현재 직무와 전공이 무관함에도 근무하는 주된 이유 ·전공의 직무유용성 ·학력일치도 ·재학 시 습득했으면 직무에 도움이 되었을 기술(능력) <이직 희망 여부> ·이직 희망 여부 ·선택기준 ·전직을 위한 활동 ·희망 업무 ·전직희망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전 직장 여부> ·첫 직장 유무 ·근무 직장 횟수 ·전 직장 경험이 현 직장 취업 도움여부

자. 취업구조

취업자 관련 항목은 이행과정,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황, 직장과 전공과의 관계, 이직 희망 여부, 전 직장 여부 등 총 5가지의 중분류 항목으로 나누어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 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표 <III-2> 참조).

이중 첫째로 이행과정은 현 직장 시작시기 및 구직 기간, 구직방법을 질문하고, 둘째로 직장의 상황은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 직장의 유형,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등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셋째로 전공만족도, 학력일치도, 직무만족도 등을 통해서 학력과 직업(직무)와의 관계 등을 질문하며, 넷째로 이직 희망 가능성 및 희망 직종, 산업 등을 통해서 이직 희망 여부를 질문한다. 따라서 5개의 중분류 항목은 다시 30개의 세분류 질문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흐름으로는 전공의 활용도 및 유용성과 학력별, 전공별, 성별로 고용형태에 미치는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 이때 각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3-digit)를,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소분류(3-digit)와 고용직업분류상의 세분류(4-digit)를 기준을 사용하였다.

차. 미취업구조

미취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설문항목에서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의 65번째 문항 '지난 주 구직 여부'에서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경우 미취업자 항목의 나1번째 문항을 다시 질문하여 '취업가능성 여부'에서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실업자로 분류되며, 나머지 '지난 주 구직 여부'에서 구해보았으나 미취업자 항목의 나1번째 문항 '취업가능성 여부'에서 없었다고 응답하거나, 또는 '지난 주 구직 여부'에서 구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표 <III-3> 참조).

관련 항목으로는 취업가능성 여부, 현재 근무가능 여부, 지난 주에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 지난 6개월 동안 취업 여부, 구직활동 기간, 구직 방법,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이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희망 고용형태, 희망 근무형태, 희망 업무, 직

장선택 기준, 희망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실업기간 동안 교육훈련 여부, 교육훈련의 기간 · 종류 · 기관, 희망임금, 그리고 졸업 후 직장경험 유무 등 세부적으로 19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로서 그 이유가 어떠한 원인에서 나왔는지를 구직의 방법적 차원과 교육과정 차원에 두고 설문 흐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업자의 희망 직종 항목을 통하여 산업의 수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며,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내다보는 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III-3>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설문의 구성

조사영역	항목수	세부항목	비고
미취업자 항목	19	·지난 주 근무가능성 여부 ·현재 근무가능 여부 ·지난주에 비구직 이유 ·지난 6개월 동안 취업여부 ·구직활동기간 ·구직 방법 ·취업실패 사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희망 고용형태 ·희망 근무형태 ·희망 업무 ·직장선택 기준 ·희망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교육훈련여부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기관 ·희망 (세전)소득 ·졸업 후 직장경험 유무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카. 졸업 후 첫 직장 사항

본 항목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즉, 노동이동(labor mobility)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응답자가 졸업 후 첫 직장인지, 전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본 설문은 총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4> 참조).

전 직장의 퇴직 시기를 묻는 설문을 통하여 미취업 기간을 추정하고, 산업, 직업, 직위, 종사상 지위, 사업체규모 등 전 직장 관련 설문을 통하여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에 대한 특징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또한,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전공의 직무유용성, 직무의 학력일치도, 전직장 이직이유 등을 질문함으로써 전직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표 III-4> 졸업 이후 첫 직장에 관한 설문의 구성

조사영역	항목수	세부항목	비고
전직장 항목	15	·전 직장 시작시기 ·직전 직장의 퇴직시기 ·산업분류 ·업무 ·직업분류 ·직위 ·종사상 지위 ·사업체규모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전공의 직무유용성 ·직무의 학력일치도 ·교육훈련여부 ·교육훈련기간 ·전직장 이직이유 ·전직장 월평균 (세전)소득	첫 직장이 있는 경우

3. 분류체계 및 용어의 정의

가. 학과 분류

학과 구분 및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3 학과(전공) 분류체계』를 따르되, 일부 학과와 명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양한 학과 및 전공을 그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 중/ 소분류의 3단계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대분류 7개, 중분류 31개, 소분류 76개로, 대학교의 경우 대분류 7개, 중분류 35개, 소분류 121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다.

<표 III-5> 학과(전공) 분류체계

	전문대학		대학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계열	2	9	2	20
사회계열	3	9	3	16
교육계열	3	3	5	10
공학계열	11	26	11	28
자연계열	4	9	4	19
의약계열	2	5	4	8
예체능계열	6	15	6	20
합 계	31	76	35	12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 **2003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중분류 및 소분류의 학과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6> 및 <표 III-7>과 같으며, 학과 개요 및 주요 교육내용, 적성 및 흥미 등 학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의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I-6> 전문대의 학과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계열	언어 · 문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 · 기타어 문예창작 교양어
	인문과학	문헌정보 문화 인문일반
사회계열	경영 · 경제	경영 · 경제 관광 금융 · 회계 · 세무 무역 · 유통
	법률	법
	사회과학	가족 · 사회 · 복지 비서 언론 · 방송 행정
교육계열	교육일반	사회 · 자연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 · 설비 건축 조경 건설
	토목 · 도시	토목
	교통 · 운송	지상교통 해양
	기계 · 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 · 전자	전기 전자 제어계측
	정밀 · 에너지	광학 · 에너지
	소재 · 재료	반도체 · 세라믹 섬유 재료
	컴퓨터 · 통신	전산 ·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 ·통신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학계열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자연계열	농림 · 수산	농수산 원예
	생물 · 화학 · 환경	생물 자원 환경
	생활과학	가정관리 식품 · 조리 의류 · 의상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지적
의약계열	간호	간호
	치료 · 보건	보건 재활 의료장비 의무행정
예체능계열	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	공예 사진 · 만화 영상 · 예술 뷰티아트
	무용 · 체육	무용 체육
	미술 · 조형	미술
	연극 · 영화	연극 · 영화
	음악	음악

<표 III-7> 대학교의 학과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계열	언어 · 문학	언어학 국어 · 국문학 일본어 · 문학 중국어 · 문학 기타 아시아어 · 문학 영미어 · 문학 독일어 · 문학 러시아어 · 문학 스페인어 · 문학 프랑스어 · 문학 기타 유럽어 · 문학 교양어 · 문학
	인문과학	문헌정보학 문화 · 민속 · 미술사학 심리학 역사 · 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 · 윤리학 교양인문학
사회계열	경영 · 경제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 · 홍보학 금융 · 회계 · 세무학 무역 · 유통학 교양경상학
	법률	법학
	사회과학	가족 · 사회 · 복지학 국제학 도시 · 지역학 사회학 언론 · 방송 · 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학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특수교육	특수교육학
	초등교육	초등교육학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육계열	중등교육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 · 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 · 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 · 운송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 · 금속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 · 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 · 에너지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 · 재료	반도체 · 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 · 통신	전산학 · 컴퓨터공학 응용 소프트웨어 정보 · 통신공학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자연계열	농림 · 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 · 원예학
	생물 · 화학 · 환경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 · 수의학 자원학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계열	생물 · 화학 · 환경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 · 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 · 물리	수학
	천문 · 지리	통계학 물리 · 과학 천문 · 기상학 지구 · 지리학 교양자연과학
의약계열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	간호학
	약학	약학
	치료 · 보건	보건학 재활학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	공예 사진 · 만화 영상 · 예술
	무용 · 체육	무용 체육
	미술 · 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연극 · 영화	연극 · 영화
	음악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나. 산업 분류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본 조사의 산업분류 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의 소분류체계(3-digit)를 따른다.

다. 직업 분류

직업분류는 접근방식에 따라 크게 기술수준(skill level)과 기술형태(skill type)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의 대표적인 분류체계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와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직업분류(OES)가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중고원의 고용직업분류는 기술형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분류체계가 상충된다.

<표 III-8>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8	34	72
1 전문가	8	33	75	240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9	29	68	193
3 사무 종사자	2	11	28	58
4 서비스 종사자	4	14	31	75
5 판매 종사자	3	6	9	18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3	10	24	48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	17	70	282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	23	82	357
9 단순노무 종사자	4	9	23	58
A 군인	1	2	3	3
11	46	162	447	1,404

<표 III-9> 고용직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관리직	1	7	21
경영 · 재무직	2	8	36
사회서비스직	5	27	90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5	21	76
건설 · 생산직	9	50	147
농림어업직	1	5	13
군인	1	1	1
7	24	119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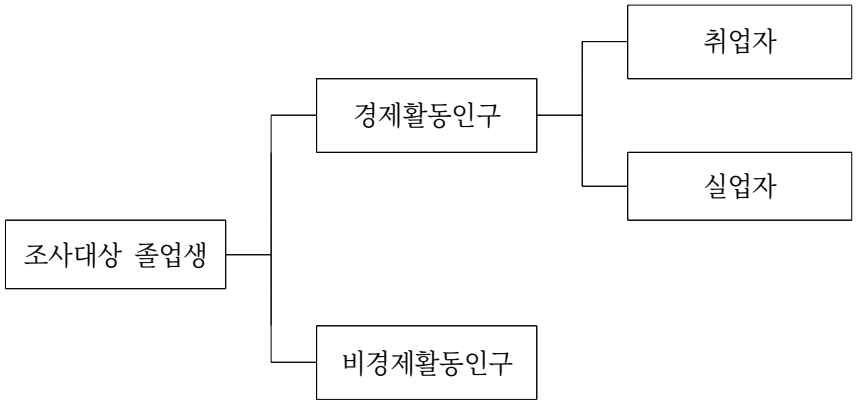
먼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표 III-8>에서 보듯이 대 · 중 · 소 · 세 · 세세분류의 5단계 구분이며, 구성은 대분류 11, 중분류 46, 소분류 162, 세분류 447, 세세분류 1,404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직업분류는 <표 III-9>에서 보듯이 대 · 중 · 소 · 세분류의 4단계 구분이며, 구성은 대분류 7, 중분류 24, 소분류 119, 세분류 384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 경제활동상태 구분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구분은 통계청『경제활동조사』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조사대상 졸업생은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며, 경제활동인구란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그림 [III-3] 참조). 여기서 취업자란 조사대상기간 중 소득 있은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된다. 경제활동상태 구분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총 조사대상자*100
- 고용률=취업자/ 총 조사대상자*100
- 취업률=취업자/ 경제활동인구*100

- 실업률=실업자/ 경제활동인구*100
- 미취업률=(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총 조사대상자*100



[그림 III-3] 경제활동상태 분류

Ⅳ. 졸업생 조사 결과

1.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준비

가. 중등단계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이동

일반적으로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는 전문대 및 대학교 진학 이후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문대 및 대학교에 진학하는 최근의 고학력화 보편화 추세로 이러한 현실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쟁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보다 좋은 학교, 보다 좋은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Ⅳ-1>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 현황을 각 16개 시·도 단위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학교간 서열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상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 이동(migration)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를 동일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전체의 57.0%이며, 나머지 43.0%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입학하여 다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 현상은 전문대(35.6%)보다는 대학교(49.4%)의 경우가 높았으며, 반대로 전문대는 64.4%가, 대학교는 50.6%가 동일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일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자들의 지역별 비교결과를 보면, 대전(83.5%)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82.8%), 광주(79.6%) 등의 순서다. 반면에 충남(6.4%), 전남(24.4%), 경북(24.6%), 인천(28.0%)의 경우는 교육문제로 인한 인력유출이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표 Ⅳ-1> 지역별 진학현황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동일 지역	타지역	전체	동일 지역	타지역	전체	동일 지역	타지역	전체
전체	64.4	35.6	100.0	50.6	49.4	100.0	57.0	43.0	100.0
서울	61.7	38.3	100.0	71.7	28.3	100.0	67.7	32.3	100.0
부산	93.4	6.6	100.0	69.4	30.6	100.0	82.8	17.2	100.0
인천	29.3	70.7	100.0	26.8	73.2	100.0	28.0	72.0	100.0
대구	91.2	8.8	100.0	-	100.0	100.0	42.3	57.7	100.0
광주	94.1	5.9	100.0	63.4	36.6	100.0	79.6	20.4	100.0
대전	96.4	3.6	100.0	67.9	32.1	100.0	83.5	16.5	100.0
울산	68.9	31.1	100.0	64.9	35.1	100.0	66.5	33.5	100.0
경기	55.6	44.4	100.0	23.0	77.0	100.0	38.8	61.2	100.0
강원	35.8	64.2	100.0	60.6	39.4	100.0	54.2	45.8	100.0
충북	-	100.0	100.0	60.2	39.8	100.0	45.0	55.0	100.0
충남	5.9	94.1	100.0	7.1	92.9	100.0	6.4	93.6	100.0
전북	70.0	30.0	100.0	70.8	29.2	100.0	70.5	29.5	100.0
전남	24.7	75.3	100.0	24.0	76.0	100.0	24.4	75.6	100.0
경북	31.3	68.7	100.0	18.5	81.5	100.0	24.6	75.4	100.0
경남	52.2	47.8	100.0	50.8	49.2	100.0	51.5	48.5	100.0
제주	93.9	6.1	100.0	57.4	42.6	100.0	75.4	24.6	100.0

한편, 대학 입학시 각자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문대 및 대학교 입학생 모두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주된 선택의 이유로 들고 있다. <표 Ⅳ-2> 및 <표 Ⅳ-3>에 따르면,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 전공 선택의 주된 동기 중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이 전체 응답자 중 각각 51.4%, 54.1%로서 가장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 다음의 주된 동기에 대해서는 학교·급 간 다소 차이가 있어 전문대에서는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던 직업 및 취업전망(28.1%)이 대학교 단계에서는 세 번째 순위(17.0%)를 보였고, 전문대에서는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던 수능점수 및 성적(11.7%)이 대학교에서는 두 번째 순위(20.4%)로 나타났다.

<표 Ⅳ-2>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지원의 주된 동기

(단위: %)

	직업 및 취업전망	수능점수 및 성적	학문적 흥미 및 적성	기타[1)]	전체
전체	28.1	11.7	51.4	8.8	100.0
언어 · 문학	16.8	9.3	69.5	4.4	100.0
인문과학	10.9	34.4	43.8	10.9	100.0
경영 · 경제	33.2	14.4	43.2	9.2	100.0
법률	42.9	-	42.9	14.3	100.0
사회과학	23.8	12.9	49.3	14.0	100.0
교육일반	8.7	21.7	69.6	-	100.0
유아교육	23.2	6.5	60.5	9.9	100.0
특수교육	13.3	13.3	60.0	13.3	100.0
건축	16.7	15.4	58.4	9.5	100.0
토목 · 도시	30.6	20.9	31.3	17.2	100.0
교통 · 운송	63.6	-	18.2	18.2	100.0
기계 · 금속	28.7	9.0	58.0	4.2	100.0
전기 · 전자	35.9	12.0	46.4	5.7	100.0
정밀 · 에너지	51.2	4.9	17.1	26.8	100.0
소재 · 재료	28.6	17.5	47.6	6.3	100.0
컴퓨터 · 통신	36.9	10.8	46.5	5.8	100.0
산업	45.9	18.9	32.4	2.7	100.0
화공	16.7	20.4	53.7	9.3	100.0
기타	23.8	21.9	46.7	7.6	100.0
농림 · 수산	20.0	20.0	55.0	5.0	100.0
생물 · 화학 · 환경	28.1	19.0	35.9	17.0	100.0
생활과학	17.2	13.0	61.5	8.3	100.0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31.0	21.4	23.8	23.8	100.0
간호	50.0	7.7	26.5	15.8	100.0
치료 · 보건	43.3	11.3	26.7	18.7	100.0
디자인	11.9	6.6	78.7	2.8	100.0
응용예술	19.4	4.0	70.9	5.7	100.0
무용 · 체육	12.3	1.4	82.2	4.1	100.0
미술 · 조형	18.2	4.5	77.3	-	100.0
연극 · 영화	-	-	100.0	-	100.0
음악	4.9	2.4	87.8	4.9	100.0

주 : 1) 기타 항목에는 부모, 친지 등 주위의 권유와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등이 이에 포함됨.

<표 Ⅳ-3> 대학교 졸업생의 전공지원의 주된 동기

(단위: %)

	직업 및 취업전망	수능점수 및 성적	학문적 흥미 및 적성	기타[1)]	전체
전체	17.0	20.4	54.1	8.5	100.0
언어 · 문학	12.5	21.3	58.9	7.3	100.0
인문과학	6.9	20.8	64.8	7.4	100.0
경영 · 경제	28.4	17.9	43.4	10.3	100.0
법률	19.0	19.0	46.0	16.1	100.0
사회과학	13.5	22.7	53.4	10.3	100.0
교육일반	26.9	15.4	43.6	14.1	100.0
유아교육	24.4	12.2	51.2	12.2	100.0
특수교육	5.3	5.3	89.5	-	100.0
초등교육	19.4	-	55.6	25.0	100.0
중등교육	15.7	11.7	62.7	9.9	100.0
건축	18.3	14.3	61.7	5.7	100.0
토목 · 도시	24.8	16.5	43.8	14.9	100.0
교통 · 운송	20.3	23.8	49.0	7.0	100.0
기계 · 금속	22.4	17.9	52.8	6.9	100.0
전기 · 전자	25.2	12.9	52.6	9.3	100.0
정밀 · 에너지	21.7	21.7	56.5	-	100.0
소재 · 재료	16.1	44.1	30.8	9.0	100.0
컴퓨터 · 통신	29.6	13.7	50.3	6.4	100.0
산업	23.5	27.8	33.9	14.8	100.0
화공	19.5	31.0	37.9	11.5	100.0
기타	26.2	16.9	47.7	9.2	100.0
농림 · 수산	8.8	50.9	25.4	14.9	100.0
생물 · 화학 · 환경	11.0	32.4	50.9	5.8	100.0
생활과학	13.5	29.3	48.5	8.6	100.0
수학 · 물리	5.9	21.8	66.3	5.9	100.0
천문 · 지리	9.8	31.0	51.9	7.3	100.0
의료	25.9	11.1	51.9	11.1	100.0
간호	48.7	23.1	12.8	15.4	100.0
약학	37.3	20.3	25.4	16.9	100.0
치료 · 보건	23.3	34.9	37.2	4.7	100.0
디자인	5.4	5.4	87.6	1.6	100.0
응용예술	7.2	4.3	84.1	4.3	100.0
무용 · 체육	8.3	9.4	79.2	3.1	100.0
미술 · 조형	1.3	6.0	91.3	1.3	100.0
연극 · 영화	-	-	100.0	-	100.0
음악	2.2	2.7	89.7	5.4	100.0

주 : 1) 기타 항목에는 부모, 친지 등 주위의 권유와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등이 이에 포함됨.

대학교 입학시 주요 고려사항이었던 전공지원의 동기는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 학과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학과(전공)분류 대분류 수준으로 보면, 인문·교육·예체능 등의 계열에서는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학과선택의 주된 동기로 고려하였다는 비중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사회계열과 의약계열 등은 직업 및 취업전망의 이유가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공계열과 농림수산계열은 세부 학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토목, 전기·전자, 컴퓨터, 산업공학 관련 학과 등은 직업 및 취업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에 소재·재료, 화공 관련 학과는 수능점수 및 성적의 비중이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의 준비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 및 직업을 얻기 위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구직활동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통상 전문대 학생의 경우는 졸업을 앞둔 시점인 2학년 재학시, 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4학년 재학시 주로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 경험을 미리 한다든지, 학원 및 직업훈련 수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TOEIC, TOEFL 등 외국어 시험을 통한 점수를 취득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준비한다. 또한 국가고시 준비 및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조사(김형만 외, 2002)에서는 이러한 취업준비 노력들이 유의한 수준에서 취업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를 이러한 직업의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재학 중 일한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Ⅳ-4>에서 보듯이 정규직 취업, 시간제 취업, 현장실습, 창업 등 재학 중 경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일자리 중 시간제 취업을 통한 일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64.3%가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실습 20.1%, 정규직 취업 8.9% 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제 취업은 많은 졸업생들이 재학 중 경험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취업에 큰 도움이 못 되는 반면에 정규직 취업이나 현장실습은 경험한 졸업생의 비율은 낮지만 한번 경험하

면 이러한 경험이 향후 취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급별로는 전문대의 경우가 대학교보다 재학시 정규직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시간제 취업의 경우는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Ⅳ-4> 재학 중 일한 경험과 취업에의 도움 여부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정 규 직	없음		88.0	93.8	91.1
	있음		12.0	6.2	8.9
		도움안됨	2.3	1.2	1.7
		도 움	9.8	5.0	7.2
시간제 취업[1)]	없음		42.1	30.3	35.7
	있음		57.9	69.7	64.3
		도움안됨	34.3	39.5	37.1
		도 움	23.6	30.2	27.2
현장실습	없음		68.1	90.1	79.9
	있음		31.9	9.9	20.1
		도움안됨	11.2	3.3	6.9
		도 움	20.7	6.6	13.1
창 업	없음		99.5	99.2	99.4
	있음		0.5	0.8	0.6
		도움안됨	0.3	0.3	0.3
		도 움	0.2	0.4	0.3

주 : 1) 개인 과외지도는 제외함.

<표 Ⅳ-5>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

(단위: %)

	없음	있음			전체
			전공일치	불일치	
전체	32.1	67.9	47.4	20.5	100.0
언어 · 문학	43.9	56.1	26.4	29.7	100.0
인문과학	31.3	68.8	35.9	32.8	100.0
경영 · 경제	36.5	63.5	32.3	31.2	100.0
법률	50.0	50.0	7.1	42.9	100.0
사회과학	22.3	77.7	43.8	33.8	100.0
교육일반	4.3	95.7	73.9	21.7	100.0
유아교육	13.7	86.3	73.0	13.3	100.0
특수교육	6.7	93.3	86.7	6.7	100.0
건축	36.4	63.6	45.6	18.0	100.0
토목 · 도시	32.1	67.9	56.7	11.2	100.0
교통 · 운송	36.4	63.6	63.6	-	100.0
기계 · 금속	30.4	69.6	52.1	17.5	100.0
전기 · 전자	27.3	72.7	63.6	9.1	100.0
정밀 · 에너지	24.4	75.6	68.3	7.3	100.0
소재 · 재료	50.8	49.2	25.4	23.8	100.0
컴퓨터 · 통신	26.4	73.6	61.1	12.5	100.0
산업	32.4	67.6	43.2	24.3	100.0
화공	38.9	61.1	37.0	24.1	100.0
기타	41.0	59.0	35.2	23.8	100.0
농림 · 수산	70.0	30.0	10.0	20.0	100.0
생물 · 화학 · 환경	39.2	60.8	31.4	29.4	100.0
생활과학	36.8	63.2	44.3	18.8	100.0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23.8	76.2	42.9	33.3	100.0
간호	21.9	78.1	57.7	20.4	100.0
치료 · 보건	23.5	76.5	57.1	19.3	100.0
디자인	46.9	53.1	32.8	20.3	100.0
응용예술	35.6	64.4	43.3	21.1	100.0
무용 · 체육	17.8	82.2	69.9	12.3	100.0
미술 · 조형	27.3	72.7	50.0	22.7	100.0
연극 · 영화	81.8	18.2	-	18.2	100.0
음악	56.1	43.9	31.7	12.2	100.0

<표 Ⅳ-6> 대학교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

(단위: %)

	없음	있음			불일치
			전공일치	불일치	
전체	48.5	51.5	27.7	23.9	100.0
언어 · 문학	57.3	42.7	14.9	27.8	100.0
인문과학	47.4	52.6	20.8	31.8	100.0
경영 · 경제	46.3	53.7	28.5	25.2	100.0
법률	67.9	32.1	1.5	30.7	100.0
사회과학	43.4	56.6	20.3	36.3	100.0
교육일반	12.8	87.2	52.6	34.6	100.0
유아교육	9.8	90.2	53.7	36.6	100.0
특수교육	21.1	78.9	36.8	42.1	100.0
초등교육	11.1	88.9	52.8	36.1	100.0
중등교육	16.0	84.0	46.4	37.6	100.0
건축	42.3	57.7	44.6	13.1	100.0
토목 · 도시	24.8	75.2	67.8	7.4	100.0
교통 · 운송	53.1	46.9	25.9	21.0	100.0
기계 · 금속	62.1	37.9	20.0	17.9	100.0
전기 · 전자	56.7	43.3	34.0	9.3	100.0
정밀 · 에너지	43.5	56.5	30.4	26.1	100.0
소재 · 재료	68.2	31.8	7.6	24.2	100.0
컴퓨터 · 통신	31.3	68.7	64.0	4.7	100.0
산업	50.4	49.6	23.5	26.1	100.0
화공	58.6	41.4	10.9	30.5	100.0
기타	55.4	44.6	29.2	15.4	100.0
농림 · 수산	50.0	50.0	23.7	26.3	100.0
생물 · 화학 · 환경	53.1	46.9	17.1	29.9	100.0
생활과학	36.1	63.9	36.5	27.4	100.0
수학 · 물리	45.5	54.5	8.9	45.5	100.0
천문 · 지리	48.8	51.2	24.4	26.8	100.0
의료	20.4	79.6	74.1	5.6	100.0
간호	15.4	84.6	53.8	30.8	100.0
약학	11.9	88.1	79.7	8.5	100.0
치료 · 보건	20.9	79.1	58.1	20.9	100.0
디자인	73.7	26.3	19.9	6.5	100.0
응용예술	73.9	26.1	11.6	14.5	100.0
무용 · 체육	32.3	67.7	54.2	13.5	100.0
미술 · 조형	82.6	17.4	6.7	10.7	100.0
연극 · 영화	90.5	9.5	-	9.5	100.0
음악	84.9	15.1	5.4	9.7	100.0

다음으로 <표 Ⅳ-5>와 <표 Ⅳ-6>은 설문대상 졸업생들의 전문대 및 대학교 재학시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자격증 취득 노력들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벌중심의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신대학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이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학교(51.5%)보다는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득률(67.9%)이 높은 실정에 있다. 전공별로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전공분야에서 취득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없이 전공에 따라 다소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취득한 자격증이 평균적으로는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전공 및 학과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자격증 취득 노력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비효율성(social inefficiency)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채용방법이 대규모 공채위주에서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신규인력 채용시 다른 조건 못지 않게 TOEIC, TOEFL 등 외국어 시험성적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반응하여 외국어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Ⅳ-7>은 이러한 외국어 시험의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38.2%가 외국어 시험 경험이 있는 가운데 학교 · 급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의 경우는 외국어 시험 경험이 있는 자는 14.7%인 반면에 대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오히려 있는 경우(58.4%)가 없는 경우(41.6%)보다 높았다. 환언하면, 앞의 자격증 취득현황과 결부하여 전문대 학생의 경우는 취업의 준비수단으로서 외국어 시험보다는 자격증 취득을 선호하며, 반대로 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보다는 외국어 시험을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Ⅳ-7> 외국어 시험 경험

(단위: 명, %)

	없음	있음	전체
전 체	8,668(61.8)	5,358(38.2)	14,026(100.0)
전문대	5,533(85.3)	950(14.7)	6,483(100.0)
대학교	3,135(41.6)	4,408(58.4)	7,543(100.0)

최근의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하여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1년을 휴학하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학시 휴학 여부와 횟수, 그리고 휴학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문한 결과는 <표 Ⅳ-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중 50.7%가 1회 이상의 휴학 경험이 있으며, 이 중 8.7%는 2회 이상의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휴학의 경험은 전문대보다는 대학교 졸업생이 많아 1번 이상 휴학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대의 경우 응답자의 31.9%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교의 경우는 전문대의 2배 이상인 66.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번 이상 휴학 경험의 경우, 전문대는 1.0%에 머무른 반면에 대학교는 15.4%나 되었다.

휴학의 사유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군 입대를 주요 이유로 말한 가운데, 이 이유를 제외하면 가사, 결혼,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의 비중과 해외연수를 위한 휴학,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CPA 등 자격증 준비와 공무원 시험 준비, 국가고시 준비, 해외어학 연수 등이 보다 폭넓은 개념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라고 판단한다면 앞서 말하고 있는 '대학 5년생'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현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문대보다는 대학교 졸업생의 이러한 휴학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8> 휴학 사유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군 입대	81.7	92.5	0.0	54.9	70.8	0.1
수능시험 준비	0.6	0.4	2.0	0.6	0.3	1.4
대학 편입학시험 준비	0.5	0.2	2.8	0.6	0.2	1.8
대학원 진학시험 준비	0.0	0.1	0.0	0.3	0.1	0.7
CPA 등 자격증 준비	0.6	0.3	2.4	2.7	2.4	3.6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고시 준비	-	-	0.4	1.6	1.6	1.5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	0.1	-	0.8	0.8	0.6	1.4
해외어학연수 및 기타 해외연수	0.6	0.2	4.0	10.3	5.9	25.3
유학준비	0.4	0.2	2.4	0.6	0.4	1.1
가사, 결혼, 건강 등 개인적 사정	11.0	4.3	61.4	18.1	11.2	42.0
재정적 곤란	1.9	0.8	10.0	2.4	1.4	5.8
취업 준비	1.3	0.6	6.4	5.1	3.7	9.9
창업 준비	0.1	-	0.8	0.3	0.2	0.6
아르바이트	0.9	0.3	5.2	1.6	0.9	4.1
기타	0.3	0.2	1.2	0.3	0.3	0.6

2.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가. 구직 과정과 구직 강도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전문대 및 대졸 청년층은 향후 30 40년 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자 부단히 직장탐색(job search)을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들은 각자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대 졸업예정자들은 2학년초부터 졸업을 앞둔 시점에,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4학년부터 졸업을 앞둔 시점을 전후로 본격

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데, 이때 구직을 위한 조건으로 앞서 논의한 자격증과 외국어 시험 성적 등 각자가 노동시장 이행의 준비단계에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signal)를 기본으로 취업하고자 원하는 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 후, 비로소 노동시장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최근 대학졸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졸업 전 4.3개월(전문대 3.8개월, 대학교 4.7개월)부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여 평균 8.2번(전문대 4.7번, 대학교 11.7번)을 제출하고, 서류전형 단계 수준을 제외한 3.1번(전문대 2.6번, 대학교 3.7번)의 최종면접을 실시한 끝에 첫 직장을 얻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직과정을 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첫 이력서 제출시기와 관련해서는 <표 Ⅳ-9>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67.7%가 졸업 전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32.3%는 졸업 후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력서 제출시기는 대학교 졸업생이 전문대 졸업생보다 다소 빨라 전체 대학교 졸업생 중 72.6%가 졸업 전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반면에 전문대는 62.5%가 졸업 전에 처음으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한다.

<표 Ⅳ-9> 첫 이력서 제출시기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졸업 전	62.5	72.6	67.7
· 12개월 이상	2.5	3.7	3.1
· 6개월 12개월 미만	9.9	22.4	16.3
· 3개월 6개월 미만	10.0	14.2	12.2
· 3개월	14.1	14.9	14.5
· 2개월	15.4	11.0	13.2
· 1개월 미만	10.6	6.3	8.4
졸업 후	37.5	27.4	32.3

다음으로 <표 Ⅳ-10>에서 보듯이 첫 직장을 얻기까지 이력서를 1번만 제출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은 전체 졸업생들의 31.5%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

음으로 2 3번 28.5%, 5 9번 11.7%, 10 19번 10.8% 등의 순서를 차지하였다. 보통 첫 직장을 얻기까지 이력서를 3번 이하 제출한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반대로 20번 이상 제출한 졸업생들도 12.7%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0번 이상 제출한 자들도 전체 졸업생 100여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의 이력서 제출회수가 구직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전문대졸자보다는 오히려 대졸자들의 구직강도가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첫 직장을 얻기까지 3회 이하로 이력서를 제출한 회수를 비교하면, 전문대졸의 경우는 전체의 71.9%에 이르고 있으나 대졸의 경우는 48.4%로서 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었으나, 반면에 5 9회 정도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는 대졸자들이 전문대졸자보다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0회 이상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응답한 자들도 전문대의 경우는 0.4%이었으나 대졸자들은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이력서 제출회수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번	38.0	25.1	31.5
2번	17.6	10.9	14.2
3번	16.3	12.4	14.3
4번	4.9	4.5	4.7
5 9번	11.1	12.3	11.7
10 19번	7.2	14.4	10.8
20 49번	3.6	13.9	8.8
50 99번	0.9	4.7	2.8
100번 이상	0.4	1.8	1.1

한편, 이력서를 제출을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결과로서 맞이하는 취업의 첫 번째 관문은 회사로부터의 면접전형이다. <표 Ⅳ-11>은 이러한 면접회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 직장을 얻기까지 서류전형 단계를 제외한 1번의 최종 면접을 통해 첫 직장을 얻은 경우는 전체 졸업생들 중 41.0%로서 평균적으로 10명 중 4명이 회사와의 최종

면접이 실시되면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번째 최종 면접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는 20.3%이고, 3번째 최종 면접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는 15.8%이며, 일부 졸업자(6.9%)들은 10번 이상의 회사와의 최종면접을 행한 후 첫 직장을 얻게 된다.

또한 이력서 제출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졸자보다는 전문대졸자들이 최종 면접을 통한 구인과 구직이 일치(matching)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번의 최종 면접을 통해서 바로 취업한 경우는 전문대졸자가 46.3%로서 대졸자의 35.7%보다 높은 반면에 5번 이상의 최종 면접을 실시한 후 첫 직장을 얻는 경우는 대졸자(23.3%)가 전문대졸자(11.8%)의 2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 면접한 회사수[1)]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번	46.3	35.7	41.0
2번	22.2	18.5	20.3
3번	15.5	16.0	15.8
4번	4.2	6.5	5.3
5 9번	7.7	13.6	10.7
10 19번	3.0	7.6	5.3
20번 이상	1.1	2.1	1.6

주 : 1) 서류전형 단계는 제외함.

나. 구직 조건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층 신규인력은 성, 학력, 전공 등 자신의 경력(career)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낳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이 때 직장의 지리적 위치는 어디이고, 임금조건을 어떠하며, 임금 이외 근로조건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과 맞는지, 그리고 향후 그 직업의 전망은 좋

은지 등등 직장 및 직업에 대한 많은 사항을 다각도로 고민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청년층 신규인력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 노동시장 상황은 분명히 다르고 근로조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다 낳은 직장을 얻기 위한 이동(migration)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역의 두뇌유출을 촉발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의 한 축이 지역의 인력유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조사결과, 최근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들은 본인의 출신학교와 다른 지역의 구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및 <표 Ⅳ-13>에서 나타나듯이 구직 장시 만약 취업이 된다면 그 일자리가 출신대학과 다른 지역이더라도 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반수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전문대졸자(56.0%)보다 대졸자(60.6%)의 경우가 더욱 높았다. 학과별로도 대부분의 학과 출신자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구직의사가 높은 가운데 전문대졸자의 경우는 법률 전공자(80.0%)의 구직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토목 · 도시, 교통 · 운송, 기계 · 금속, 전기 · 전자, 산업 등 이공계의 구직의사도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졸자의 경우는 특수교육(89.5%) 전공자의 구직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공계열의 구직의사도 70% 내외의 수치를 보여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Ⅳ-12> 전문대 졸업생의 출신학교와 다른 지역의 구직의사

(단위: %)

	없었음	있었음	전체
전체	44.0	56.0	100.0
언어 · 문학	45.2	54.8	100.0
인문과학	40.7	59.3	100.0
경영 · 경제	49.9	50.1	100.0
법률	20.0	**80.0**	100.0
사회과학	41.5	58.5	100.0
교육일반	52.2	47.8	100.0
유아교육	59.6	40.4	100.0
특수교육	21.4	**78.6**	100.0
건축	48.6	51.4	100.0
토목 · 도시	32.5	67.5	100.0
교통 · 운송	30.0	70.0	100.0
기계 · 금속	35.0	65.0	100.0
전기 · 전자	35.3	64.7	100.0
정밀 · 에너지	47.1	52.9	100.0
소재 · 재료	51.8	48.2	100.0
컴퓨터 · 통신	46.3	53.7	100.0
산업	34.3	65.7	100.0
화공	58.7	41.3	100.0
기타	48.4	51.6	100.0
농림 · 수산	68.8	31.3	100.0
생물 · 화학 · 환경	41.8	58.2	100.0
생활과학	49.5	50.5	100.0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52.6	47.4	100.0
간호	40.2	59.8	100.0
치료 · 보건	30.3	69.7	100.0
디자인	42.0	58.0	100.0
응용예술	50.2	49.8	100.0
무용 · 체육	45.8	54.2	100.0
미술 · 조형	41.2	58.8	100.0
연극 · 영화	42.9	57.1	100.0
음악	43.3	56.7	100.0

<표 Ⅳ-13> 대학교 졸업생의 출신학교와 다른 지역의 구직의사

(단위: %)

	없었음	있었음	전체
전체	39.4	60.6	100.0
언어 · 문학	50.1	49.9	100.0
인문과학	42.5	57.5	100.0
경영 · 경제	42.4	57.6	100.0
법률	29.7	70.3	100.0
사회과학	43.6	56.4	100.0
교육일반	45.6	54.4	100.0
유아교육	50.0	50.0	100.0
특수교육	10.5	89.5	100.0
초등교육	45.5	54.5	100.0
중등교육	37.5	62.5	100.0
건축	37.4	62.6	100.0
토목 · 도시	23.6	76.4	100.0
교통 · 운송	28.1	71.9	100.0
기계 · 금속	32.2	67.8	100.0
전기 · 전자	34.5	65.5	100.0
정밀 · 에너지	29.4	70.6	100.0
소재 · 재료	24.8	75.2	100.0
컴퓨터 · 통신	34.0	66.0	100.0
산업	41.0	59.0	100.0
화공	26.3	73.7	100.0
기타	20.4	79.6	100.0
농림 · 수산	36.8	63.2	100.0
생물 · 화학 · 환경	33.3	66.7	100.0
생활과학	45.5	54.5	100.0
수학 · 물리	35.6	64.4	100.0
천문 · 지리	39.6	60.4	100.0
의료	47.8	52.2	100.0
간호	51.4	48.6	100.0
약학	45.2	54.8	100.0
치료 · 보건	55.0	45.0	100.0
디자인	40.9	59.1	100.0
응용예술	56.9	43.1	100.0
무용 · 체육	34.6	65.4	100.0
미술 · 조형	44.3	55.7	100.0
연극 · 영화	64.7	35.3	100.0
음악	45.1	54.9	100.0

다음으로 <표 Ⅳ-14> 및 <표 Ⅳ-15>는 졸업생들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수준과 제시임금(offered wage)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임금수준은 취업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Stigler(1962)는 구직자들은 구직대상 기업에 의한 제시임금(offered wage)을 본인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취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이나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의 여러 조건들도 취업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보다 많은 임금을 제의하는 직장으로 취업하려고 할 것이다(장홍근, 2002). 따라서 의중임금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정책적 함의(implication)를 가질 수 있다(Lancaster, 1979).[7)]

<표 Ⅳ-14> 졸업생들의 의중임금 분포 : 연봉기준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500만원 미만	56.1	13.5	33.4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0.9	31.7	3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0.4	35.8	23.9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5	12.5	7.3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0.7	4.9	3.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0.2	0.9	0.6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0.0	0.3	0.2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0.0	0.1	0.0
5,000만원 이상	0.2	0.4	0.3

조사에 따르면, 최근 졸업생들이 받고자 희망하는 의중임금 수준은 연간 평균 1,7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졸자는 2,004만원으로써 전문대졸자의 1,459만원보다 높았다. 그리고 전체 졸업생들의 의중임금 간 구성비를 보면, <표 Ⅳ-14>에서 나타나듯이

7) 의중임금과 제시임금간 차이로 인하여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 탐색이론(Search Model)의 골격이다.

대다수의 졸업생들의 의중임금이 2,500만원 이하(전체 응답자의 88.6%)로 나타난 가운데, 1,500만원 이하가 33.4%로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전문대졸자들의 의중임금 수준은 상당히 낮아 과반수(56.1%)가 1,5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졸자의 경우는 2,000 2,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희망하는 자가 전체의 35.8%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졸업생들이 구직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았던[8] 임금 수준은 연평균 1,629만원이며, 이중 전문대졸자는 1,345만원으로서 대졸자의 1,857만원보다 낮았다. 그리고 전체 졸업생들에 대해 회사가 제시한 임금에 대해 구성비를 보면, <표 Ⅳ-15>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졸업생들(전체 응답자의 91.4%)이 2,500만원 이하의 임금수준을 회사로부터 제시받았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00만원 이하가 42.6%로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0.8%,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졸자들의 제시임금 수준은 의중임금 수준의 구성비와 같이 상

<표 Ⅳ-15> 졸업생들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 연봉기준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 체	100.0	100.0	100.0
1,500만원 미만	66.5	22.9	42.6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4.9	35.7	30.8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6.7	27.4	18.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	9.1	5.6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0.2	3.9	2.2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0.2	0.7	0.4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0.2	0.1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0.1	-	0.1
5,000만원 이상	-	0.2	0.1

주 : 제안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

8) 단, 여러 회사로부터 제안 받았을 경우는 최고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당히 낮은 수준으로써 3명 중 2명 가량이(66.5%) 연간 1,500만원 미만의 임금을 회사로부터 제시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졸자의 경우는 연간 1,500 2,000만원 수준의 임금을 회사로부터 가장 많이 제시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중임금과 제시임금간의 격차는 평균 약 120여만원이며, 이러한 격차는 대졸자보다 전문대졸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사되었다. <표 Ⅳ-16>는 의중임금과 제시임금간 격차별로 구성비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제시임금보다 의중임금이 높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의중임금보다 제시임금이 높은 졸업생들의 경우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이 같은 경우는 41.9%의 구성비로서 나타났다.

<표 Ⅳ-16> 의중임금과 제시임금간 격차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의중임금>제시임금	45.3	43.8	44.5
의중임금=제시임금	41.4	42.2	41.9
의중임금<제시임금	13.2	14.0	13.6

한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Ⅳ-17>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응답자의 25.5%가 전공과 자격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로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바로 자신의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 또는 보수 17.6%, 개인의 성장가능성 15.6%, 직업의 안정성 13.5%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률은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Ⅳ-17> 직장 선택 조건(1순위 기준)

(단위: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임금 또는 보수	17.5	17.6	17.6
임금 이외 근로조건	11.0	8.7	9.8
개인의 성장가능성	12.8	18.3	15.6
직업의 안정성	13.6	13.4	13.5
사회적 지위	0.8	1.3	1.1
다른 일거리가 없어	6.7	4.0	5.3
전공 및 자격과 일치	24.8	26.1	25.5
직장의 지리적 위치	6.9	4.1	5.5
상사 · 부하 · 동료와의 인간관계	3.3	1.9	2.6
기타	2.6	4.5	3.6

주 : 1) 취업자 기준임.
2) 기타에는 병역특례, 적성에 맞아서, 군복무, 가업 등이 이에 포함됨.

다. 구직 방법 및 구직 기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은 구직방법 및 구직 활동기간 등의 관점에서도 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졸업생(취업자 기준)들의 구직방법을 보면, <표 Ⅳ-18>에서 나타나듯이 PC의 보급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PC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구직방법이 3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및 친지의 소개 27.1%, 학교 및 학원 추천 14.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등록을 통한 구직(1.0%)과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을 통한 구직(0.4%)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 사이에는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는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던 취직시험을 통한 구직방법은 기업의 채용관행이 대규모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뀜에 따라 11.5%로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표 Ⅳ-18> 현 직장 구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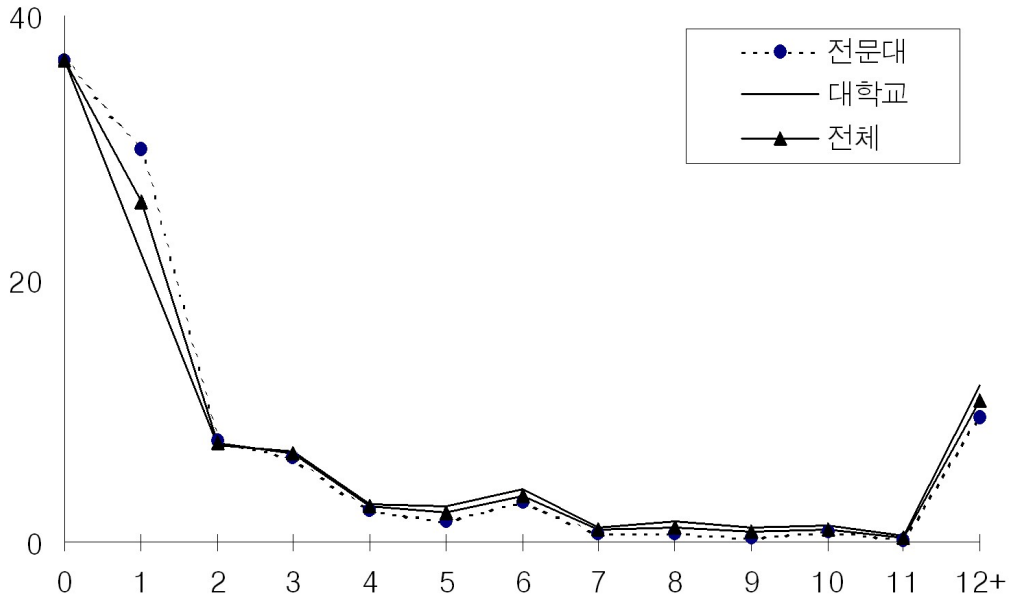
(단위: 명, %)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 등록	1.4	0.6	1.0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	0.4	0.4	0.4
취직시험	4.0	18.8	11.5
신문, 잡지, 벽보 등 구인/ 구직정보	7.2	5.5	6.3
PC통신 및 인터넷, 인력 DB	29.9	36.2	33.2
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	0.4	0.9	0.6
학교, 학원 추천	16.8	12.2	14.5
사업체 방문	2.4	1.2	1.8
친구, 친지 소개	34.6	20.0	27.1
인턴사원제를 통해	0.5	0.5	0.5
기타	2.4	3.7	3.0

주 : 1) 취업자 기준임.
2) 기타에는 창업, 군인(장교), 가업, 무응답 등이 포함됨.
3) ( )안의 수치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중임.

한편, 졸업생들이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2.1개월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학교·급별로는 전문대졸의 경우는 평균 1.7개월로서 대졸자의 2.4개월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은 양적인 측면에서 전체 실업자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청년층 실업이 점차 고학력화 되고 있다는 점,[9]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Ⅳ-1]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에 취업한 졸업자 5명 중 약 1명 꼴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즉, 전체 취업자의 18.5%가 6개월 이상 장기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부(6.9%)는 졸업 후 2년여가 경과한 현재에도 아직 실업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청년층 실업자 중 대졸 이상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1%에서 2001년 32.7%, 2002년 35.9%, 2003년 37.4%로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 : 세로축은 비중(단위 : %), 가로축은 실업기간(단위 : 월)

[그림 Ⅳ-1] 학교 · 급별 취업기간

3.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결과

가. 경제활동상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이 중 상당수는 취업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일부는 미취업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그 중 일부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다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게 된다. 즉,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한 경우는 취업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업자, 그리고 진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교에 남았거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구직활동을 하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취업난 등에 따라 포기한 경우는 비경제활동인 자로 구분한다.

졸업생들의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노동공급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취업률과 실업률 등이 있다. 조사결과, 2002년 졸업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정착하여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보면, <표 Ⅳ-19> 및 <표 Ⅳ-2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문대(82.9%)보다 대학교(74.7%)가 높았는데, 이는 대학교 졸업생 중 일부가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대 및 대학교를 학과(전공)별로 세분하면, 전문대의 경우는 교통 · 운송을 비롯한 간호학과 등의 참가율이 90% 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학교의 경우는 특수교육과 초등교육, 의료, 간호 관련 학과 등이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가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계열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실업률 수준은 6.8%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대(6.9%) 및 대학교(6.8%)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각 학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문대의 경우를 보면, 소재 · 재료(11.1%)와 전기 · 전자(10.8%) 관련 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 실업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의 전공에서는 실업률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도 전문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공계 관련 계열의 실업률 수준이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화공 관련 학과의 실업률은 무려 18.4%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의 실업률 수준은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Ⅳ-19> 전문대 졸업자의 계열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전체	82.9	77.2	93.1	6.9
언어 · 문학	73.9	67.2	90.9	9.1
인문과학	79.7	71.9	90.2	9.8
경영 · 경제	84.1	77.9	92.6	7.4
법률	57.1	57.1	100.0	-
사회과학	81.4	78.8	96.8	3.2
교육일반	82.6	78.3	94.7	5.3
유아교육	89.7	87.5	97.5	2.5
특수교육	86.7	86.7	100.0	-
건축	84.3	80.7	95.7	4.3
토목 · 도시	86.6	84.3	97.4	2.6
교통 · 운송	100.0	100.0	100.0	-
기계 · 금속	85.6	80.0	93.4	6.6
전기 · 전자	86.2	76.9	89.2	10.8
정밀 · 에너지	65.9	61.0	92.6	7.4
소재 · 재료	85.7	76.2	88.9	11.1
컴퓨터 · 통신	84.5	77.5	91.8	8.2
산업	86.5	78.4	90.6	9.4
화공	75.9	70.4	92.7	7.3
기타	87.6	81.0	92.4	7.6
농림 · 수산	80.0	80.0	100.0	-
생물 · 화학 · 환경	77.1	69.9	90.7	9.3
생활과학	80.6	72.9	90.4	9.6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83.3	76.2	91.4	8.6
간호	91.3	91.3	100.0	-
치료 · 보건	86.8	83.8	96.6	3.4
디자인	81.0	73.3	90.5	9.5
응용예술	74.9	68.4	91.4	8.6
무용 · 체육	79.5	76.7	96.6	3.4
미술 · 조형	63.6	45.5	71.4	-
연극 · 영화	72.7	63.6	87.5	-
음악	65.9	65.9	100.0	-

<표 Ⅳ-20>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전체	74.7	69.6	93.2	6.8
언어 · 문학	73.5	68.9	93.8	6.2
인문과학	70.7	66.0	93.3	6.7
경영 · 경제	84.0	79.2	94.2	5.8
법률	56.9	49.6	87.2	12.8
사회과학	76.1	72.9	95.8	4.2
교육일반	70.5	67.9	96.4	3.6
유아교육	73.2	68.3	93.3	6.7
특수교육	100.0	100.0	100.0	-
초등교육	94.4	94.4	100.0	-
중등교육	76.4	74.1	97.0	3.0
건축	77.7	73.1	94.1	5.9
토목 · 도시	71.1	63.6	89.5	10.5
교통 · 운송	80.4	72.7	90.4	9.6
기계 · 금속	72.1	65.5	90.9	9.1
전기 · 전자	73.5	67.1	91.4	8.6
정밀 · 에너지	65.2	60.9	93.3	6.7
소재 · 재료	69.2	62.1	89.7	10.3
컴퓨터 · 통신	79.3	72.1	90.8	9.2
산업	80.9	73.0	90.3	9.7
화공	71.8	58.6	81.6	18.4
기타	67.7	58.5	86.4	13.6
농림 · 수산	76.3	73.7	96.6	3.4
생물 · 화학 · 환경	65.3	59.5	91.2	8.8
생활과학	78.2	71.8	91.8	8.2
수학 · 물리	78.2	74.3	94.9	5.1
천문 · 지리	63.8	57.1	89.6	10.4
의료	94.4	92.6	98.0	2.0
간호	92.3	92.3	100.0	-
약학	67.8	64.4	95.0	5.0
치료 · 보건	81.4	79.1	97.1	2.9
디자인	84.9	81.7	96.2	3.8
응용예술	76.8	73.9	96.2	3.8
무용 · 체육	76.0	74.0	97.3	2.7
미술 · 조형	69.1	67.8	98.1	-
연극 · 영화	71.4	66.7	93.3	6.7
음악	70.8	68.1	96.2	3.8

나. 취업구조

신규 졸업자들이 취업 상태인지 미취업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어느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는가 등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고학력 수준의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지금과 같이 경제 ·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공이 필요하며, 자신의 학력 및 적성에 가장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때 개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직업의 개념이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바뀌면서 사회진출의 출발선에 있는 많은 청소년층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신중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한번 잘못 선택한 직업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적 · 비용적 낭비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지불, 그리고 취업능력(employability)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Ⅳ-21>부터 <표 Ⅳ-24>까지는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직업별, 직장형태별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최근 졸업자들이 어떠한 직업(OES 중분류 기준)[10]으로 진출하였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 모두 경영 · 회계 · 사무 관련직으로 진출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러 직업으로의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과 및 전공에 따라서는 다양한 직업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약계열 및 교육계열 전공자의 경우는 전공과 밀접한 분야로의 진출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자연계열 전공자의 경우는 각 직업분야로의 진출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앞의 제III장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직업분류(occupation classification)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와 고용직업분류(OES)가 있으나 본 결과에서는 고용직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기술수준(skill level)을 기준으로 분류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 고위임직원 등 신규 졸업자들이 바로 진입이 불가능한, 이른바 진입단계(entry level)에서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표 Ⅳ-21>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 · 직업 취업구조 행렬

(단위: %)

	관리직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금융 보험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보건 의료 관련직
전체	2.2	33.5	2.9	7.0	0.3	11.1
언어 · 문학	0.8	49.2	5.4	9.2	0.4	
인문과학		56.5		2.2	2.2	
경영 · 경제	3.1	60.0	6.2	2.1	0.2	1.1
법률	-	-	-	-	-	-
사회과학	2.2	47.6	2.9	5.5	0.7	4.4
교육일반		77.8	11.1			
유아교육		7.8	2.2	71.3		0.9
특수교육	-	-	-	-	-	-
건축	2.8	25.2	2.0	1.6	0.8	
토목 · 도시	0.9	19.5	2.7			
교통 · 운송	-	-	-	-	-	-
기계 · 금속	2.8	20.8	1.8	0.4		
전기 · 전자	3.8	24.6	1.3	1.3		0.3
정밀 · 에너지	4.0	4.0				68.0
소재 · 재료	4.2	47.9		2.1		
컴퓨터 · 통신	1.2	45.9	4.3	3.1	0.1	0.8
산업	3.4	13.8	3.4			
화공	5.3	28.9		2.6		
기타	5.9	29.4	4.7	1.2	1.2	
농림 · 수산	12.5	25.0	12.5	12.5		
생물 · 화학 · 환경	2.8	41.1	0.9	0.9		3.7
생활과학	3.4	39.2	1.5	3.0	0.4	14.8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50.0				
간호		1.1		1.1		97.8
치료 · 보건	1.3	14.0	1.5	0.8	0.3	71.7
디자인	2.0	21.6	2.0	9.6	0.3	0.9
응용예술	2.4	24.9	2.4	7.1		1.2
무용 · 체육	7.1	12.5	1.8	7.1	1.8	
미술 · 조형	-	-	-	-	-	-
연극 · 영화	-	-	-	-	-	-
음악		14.8		74.1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단위: %)

	사회 복지 종교 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운전 운송 관련직	영업 판매 관련직	경비 청소 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전체	2.0	7.1	0.9	7.6	0.7	2.8
언어 · 문학	0.4	6.2	0.8	11.9	0.4	6.2
인문과학	2.2	15.2		6.5		4.3
경영 · 경제	0.2	1.3	0.8	9.2	1.0	3.6
법률	-	-	-	-	-	-
사회과학	19.6	4.0		5.8	1.1	
교육일반				5.6		
유아교육	14.3			2.6		
특수교육	-	-	-	-	-	-
건축		13.0	1.6	8.1	1.6	1.2
토목 · 도시		1.8	2.7	6.2	0.9	
교통 · 운송	-	-	-	-	-	-
기계 · 금속		6.0	1.1	10.2		1.1
전기 · 전자		1.6	1.6	6.4	1.0	0.6
정밀 · 에너지				20.0		
소재 · 재료		10.4	2.1	2.1	2.1	
컴퓨터 · 통신		4.9	0.7	7.5	0.9	1.1
산업		6.9	3.4	6.9	3.4	3.4
화공		2.6		10.5	2.6	
기타		12.9	2.4	9.4		
농림 · 수산			6.3	12.5		
생물 · 화학 · 환경	0.9	2.8	2.8	4.7	2.8	2.8
생활과학	2.3	6.5	1.1	8.7	0.4	2.3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3.1		15.6		
간호						
치료 · 보건	0.3	0.8	0.3	3.8	0.5	0.5
디자인	0.3	41.4	0.3	9.0	0.3	2.9
응용예술	1.2	17.2		12.4		22.5
무용 · 체육		1.8	1.8	19.6	3.6	37.5
미술 · 조형	-	-	-	-	-	-
연극 · 영화	-	-	-	-	-	-
음악		7.4				3.7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단위: %)

	음식 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 (금속,유리, 점토,시멘트)	화학 관련직	섬유 의복 관련직
전체	1.9	3.8	4.5	0.3	0.4	0.2
언어 · 문학	5.4	0.4	1.2			0.4
인문과학	2.2					
경영 · 경제	3.7	0.2	1.1	0.2		0.2
법률	-	-	-	-	-	-
사회과학	1.5	0.4	0.4			
교육일반	5.6					
유아교육						
특수교육	-	-	-	-	-	-
건축	2.0	32.9	3.3			
토목 · 도시	0.9	54.0	3.5	0.9		
교통 · 운송	-	-	-	-	-	-
기계 · 금속	0.4	1.1	45.8	1.1	0.7	
전기 · 전자	1.0	1.0	8.0			
정밀 · 에너지						
소재 · 재료	4.2	2.1	2.1			4.2
컴퓨터 · 통신	0.5	0.8	2.2	0.4	0.1	0.1
산업		3.4	10.3		6.9	
화공	5.3	5.3		2.6	26.3	
기타		2.4	15.3	1.2		
농림 · 수산						
생물 · 화학 · 환경	1.9	0.9	2.8	1.9	6.5	
생활과학	8.4	0.8				0.8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18.8	3.1			
간호						
치료 · 보건	0.5	0.3	0.8	0.3		
디자인	1.2	3.8	0.9			0.3
응용예술	1.2	1.2	0.6	0.6		
무용 · 체육	1.8		1.8			
미술 · 조형	-	-	-	-	-	-
연극 · 영화	-	-	-	-	-	-
음악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단위: %)

	전기 전자 관련직	정보 통신 관련직	식품 가공 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생산 단순직	농림 어업 관련직	군인
전체	4.1	4.1	0.3	1.7	0.1	0.5
언어 · 문학	0.4	0.4		0.8		0.4
인문과학		6.5		2.2		
경영 · 경제	1.5	2.9	0.2	1.0	0.2	0.3
법률	-	-	-	-	-	-
사회과학	0.7	2.2		0.7		0.4
교육일반						
유아교육		0.4		0.4		
특수교육	-	-	-	-	-	-
건축	1.6	0.8		0.8		0.4
토목 · 도시	2.7			2.7	0.9	
교통 · 운송	-	-	-	-	-	-
기계 · 금속	2.8	0.7		2.5		1.1
전기 · 전자	35.8	8.6		2.6		0.6
정밀 · 에너지				4.0		
소재 · 재료	16.7					
컴퓨터 · 통신	5.4	16.4		1.6	0.1	1.6
산업	13.8	6.9		13.8		
화공			2.6	5.3		
기타	7.1	2.4		4.7		
농림 · 수산					18.8	
생물 · 화학 · 환경		4.7		15.0		
생활과학	0.8	0.4	4.2	1.1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6.3			3.1	
간호						
치료 · 보건	0.8	0.5	0.5	1.0		
디자인	0.6	1.5		1.2		
응용예술		4.1		0.6		0.6
무용 · 체육						1.8
미술 · 조형	-	-	-	-	-	-
연극 · 영화	-	-	-	-	-	-
음악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표 Ⅳ-22>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 · 직업 취업구조 행렬

(단위: %)

	관리직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금융 보험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보건 의료 관련직
전체	2.4	28.8	4.3	19.3	0.6	3.2
언어 · 문학	2.9	43.8	5.2	22.1	0.2	
인문과학	3.0	30.7	6.4	17.8	0.8	1.5
경영 · 경제	1.8	55.6	14.2	7.1	0.4	0.1
법률	9.0	34.3	13.4	7.5	17.9	1.5
사회과학	2.9	44.2	4.7	13.2	0.8	0.3
교육일반		7.5		77.4		
유아교육	7.1			85.7		
특수교육		5.3		94.7		
초등교육				97.1		
중등교육	0.7	7.6	1.7	78.3		0.3
건축	3.9	14.8		4.7		
토목 · 도시	5.2	22.1	1.3			
교통 · 운송	1.9	30.8	1.0	3.8		
기계 · 금속	1.6	21.7	1.6	1.6	1.1	
전기 · 전자	3.1	14.7	1.4	2.4	0.3	
정밀 · 에너지	-	-	-	-	-	-
소재 · 재료	4.6	29.8	0.8	7.6	0.8	
컴퓨터 · 통신	0.8	10.9	3.5	6.2		
산업		51.8				
화공	6.0	26.0	3.0	8.0	2.0	
기타		34.2	2.6	2.6		
농림 · 수산	3.6	33.7	4.8	9.6		
생물 · 화학 · 환경	2.1	28.0	3.6	17.3	0.3	3.3
생활과학	3.7	28.0	2.1	14.3	0.5	12.7
수학 · 물리	1.3	22.7	2.7	40.0		
천문 · 지리		34.8	6.1	24.4	0.6	
의료						100.0
간호						100.0
약학		7.9		2.6		86.8
치료 · 보건	2.9	38.2	2.9	20.6		14.7
디자인	1.3	5.3		9.3		
응용예술	2.0	19.6		9.8		
무용 · 체육	2.9	18.6	1.4	24.3	1.4	1.4
미술 · 조형	4.0	9.9		48.5		
연극 · 영화	-	-	-	-	-	-
음악	2.4	4.0		74.6	0.8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단위: %)

	사회 복지 종교 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운전 운송 관련직	영업 판매 관련직	경비 청소 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스포츠 관련직
전체	1.3	8.0	0.2	7.3	0.2	1.4
언어 · 문학	0.6	9.2		9.8		2.9
인문과학	4.9	14.0	0.8	10.6	0.8	0.8
경영 · 경제		1.3	0.3	10.8		1.2
법률		4.5	1.5	3.0		
사회과학	9.1	7.3	0.3	9.6	0.5	1.3
교육일반	5.7	3.8		1.9		
유아교육	7.1					
특수교육						
초등교육				2.9		
중등교육	0.7	2.4		1.0	0.3	1.4
건축		7.0				0.8
토목 · 도시				1.3		
교통 · 운송		1.9	1.0	4.8		
기계 · 금속		2.1	0.5	8.5		0.5
전기 · 전자		0.7		9.2	0.3	0.3
정밀 · 에너지	-	-	-	-	-	-
소재 · 재료	0.8	2.3		12.2		
컴퓨터 · 통신		2.3		3.9	0.4	0.4
산업		3.6		7.2		
화공				12.0		
기타				2.6		2.6
농림 · 수산	1.2	1.2	1.2	18.1		1.2
생물 · 화학 · 환경		2.7	0.3	13.7	0.3	1.2
생활과학	1.1	19.0		5.8	0.5	0.5
수학 · 물리	1.3	2.7		2.7		
천문 · 지리		4.3		6.7		0.6
의료						
간호						
약학				2.6		
치료 · 보건	8.8					2.9
디자인		77.5		0.7		0.7
응용예술		56.9		3.9		2.0
무용 · 체육		5.7	1.4			24.3
미술 · 조형		26.7		3.0		3.0
연극 · 영화	-	-	-	-	-	-
음악		15.9		0.8		1.6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단위: %)

	음식 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 (금속/ 유리/ 시멘트)	화학 관련직	섬유 의복 관련직
전체	0.2	3.2	2.7	0.6	0.9	0.3
언어 · 문학	0.6		0.2			
인문과학	0.4	0.4				
경영 · 경제	0.3	0.6				
법률						
사회과학	0.3	0.5	0.3	0.3		
교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0.7				
건축		60.2				
토목 · 도시		61.0	1.3			
교통 · 운송		4.8	18.3			
기계 · 금속		0.5	45.0	3.2		0.5
전기 · 전자			3.8			0.3
정밀 · 에너지	-	-	-	-	-	-
소재 · 재료		1.5	4.6	13.0	1.5	5.3
컴퓨터 · 통신		0.4		0.8		
산업		1.2	3.6		1.2	
화공			1.0	2.0	27.0	1.0
기타			13.2		5.3	
농림 · 수산		6.0	1.2			1.2
생물 · 화학 · 환경	0.3	2.7	0.9	0.3	3.6	0.3
생활과학	0.5	1.1	0.5		0.5	0.5
수학 · 물리		4.0	1.3			1.3
천문 · 지리		1.2	1.2	0.6		0.6
의료						
간호						
약학						
치료 · 보건	5.9				2.9	
디자인		0.7				
응용예술						
무용 · 체육				1.4		
미술 · 조형	1.0	1.0	1.0			1.0
연극 · 영화	-	-	-	-	-	-
음악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단위: %)

	전기 전자 관련직	정보 통신 관련직	식품 가공 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생산 단순직	농림 어업 관련직	군인
전체	3.5	7.6	0.2	1.6	0.2	2.1
언어 · 문학	0.2	0.6				1.5
인문과학	0.8	3.8		0.4		2.3
경영 · 경제	0.3	3.4		0.3	0.1	2.2
법률		1.5				6.0
사회과학		2.9				1.8
교육일반						3.8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0.3				4.5
건축		3.1		0.8	0.8	3.9
토목 · 도시		3.9				3.9
교통 · 운송	6.7	7.7		10.6		6.7
기계 · 금속	4.2	4.2		1.6		1.6
전기 · 전자	41.3	20.5		1.0		0.7
정밀 · 에너지	-	-	-	-	-	-
소재 · 재료	8.4	5.3		1.5		
컴퓨터 · 통신	4.7	62.6				3.1
산업	2.4	21.7		6.0		1.2
화공	3.0	6.0		3.0		
기타	2.6	18.4		15.8		
농림 · 수산	1.2	1.2	1.2	7.2	3.6	2.4
생물 · 화학 · 환경	0.9	5.5		8.8	0.9	2.7
생활과학		1.6	5.8	1.1		
수학 · 물리	2.7	14.7				2.7
천문 · 지리	3.0	12.2		1.8		1.8
의료						
간호						
약학						
치료 · 보건						
디자인		4.0		0.7		
응용예술		2.0		3.9		
무용 · 체육		2.9				14.3
미술 · 조형		1.0				
연극 · 영화	-	-	-	-	-	-
음악						

(표 계속)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로 처리)는 제시 안함.

<표 Ⅳ-23> 전문대 졸업자의 계열별 직장유형

(단위: %)

	자영업	중소 기업	대기업	외국 및 벤처 기업	학교	공공부문 및 기타[1)]	전체
전체	3.4	59.6	15.8	1.1	2.5	17.5	100.0
언어 · 문학	1.9	63.7	23.2	2.3	2.3	6.6	100.0
인문과학	2.2	57.8	15.6	2.2	15.6	6.7	100.0
경영 · 경제	2.6	63.3	21.6	1.1	2.6	8.7	100.0
법률	-	-	-	-	-	-	-
사회과학	3.3	48.1	17.0	1.1	2.6	27.8	100.0
교육일반	-	-	-	-	-	-	-
유아교육	0.9	88.6	2.6	-	0.9	7.0	100.0
특수교육	-	-	-	-	-	-	-
건축	4.9	75.4	10.2	-	2.0	7.4	100.0
토목 · 도시	0.9	69.9	16.8	0.9	-	11.5	100.0
교통 · 운송	-	-	-	-	-	-	-
기계 · 금속	3.5	65.6	22.0	1.8	0.7	6.4	100.0
전기 · 전자	4.5	66.8	19.4	0.3	1.3	7.7	100.0
정밀 · 에너지	4.0	80.0	0.0	-	-	16.0	100.0
소재 · 재료	6.3	64.6	18.8	-	-	10.4	100.0
컴퓨터 · 통신	3.1	57.0	19.4	3.0	5.6	11.9	100.0
산업	3.4	65.5	17.2	3.4	-	10.3	100.0
화공	2.6	76.3	18.4	-	-	2.6	100.0
기타	5.9	63.5	24.7	-	3.5	2.4	100.0
농림 · 수산	-	-	-	-	-	-	-
생물 · 화학 · 환경	3.7	59.8	17.8	1.9	0.9	15.9	100.0
생활과학	5.7	63.2	16.5	0.8	4.2	9.6	100.0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	71.9	15.6	-	6.3	6.3	100.0
간호	-	2.3	2.9	-	0.6	94.3	100.0
치료 · 보건	2.5	21.6	6.3	0.3	0.8	68.5	100.0
디자인	3.8	77.8	12.5	-	1.7	4.1	100.0
응용예술	6.0	74.3	13.2	1.2	0.6	4.8	100.0
무용 · 체육	5.7	62.3	15.1	-	1.9	15.1	100.0
미술 · 조형	-	-	-	-	-	-	-
연극 · 영화	-	-	-	-	-	-	-
음악	22.2	59.3	3.7	-	11.1	3.7	100.0

주 : 1) 기타에는 병원,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정부기관, 법인단체 등이 포함됨.
2)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제시 안함.

<표 Ⅳ-24>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직장유형

(단위: %)

	자영업	중소 기업	대기업	외국 및 벤처기업	학교	공공부문 및 기타[1)]	전체
전체	5.8	42.9	21.6	3.2	10.4	16.1	100.0
언어 · 문학	6.2	48.9	22.7	3.1	5.6	13.5	100.0
인문과학	8.0	49.8	15.2	2.3	9.1	15.6	100.0
경영 · 경제	3.7	46.8	31.0	3.2	2.8	12.5	100.0
법률	5.9	36.8	22.1	-	2.9	32.4	100.0
사회과학	4.7	42.7	18.1	2.4	3.4	28.8	100.0
교육일반	1.9	21.2	7.7	-	57.7	11.5	100.0
유아교육	7.1	71.4	3.6	-	14.3	3.6	100.0
특수교육	-	-	-	-	-	-	-
초등교육	-	2.9	-	-	94.1	2.9	100.0
중등교육	5.5	14.8	2.7	0.3	67.4	9.3	100.0
건축	3.9	64.6	16.5	0.8	0.8	13.4	100.0
토목 · 도시	3.9	46.8	20.8	-	2.6	26.0	100.0
교통 · 운송	-	40.4	37.5	4.8	1.9	15.4	100.0
기계 · 금속	2.1	38.1	47.1	1.1	0.5	11.1	100.0
전기 · 전자	3.7	33.4	39.9	6.1	2.7	14.2	100.0
정밀 · 에너지	-	-	-	-	-	-	-
소재 · 재료	6.9	40.0	27.7	6.9	2.3	16.2	100.0
컴퓨터 · 통신	2.4	41.2	29.0	11.4	7.8	8.2	100.0
산업	1.2	41.0	33.7	8.4	4.8	10.8	100.0
화공	4.9	44.1	26.5	3.9	1.0	19.6	100.0
기타	-	55.3	31.6	5.3	2.6	5.3	100.0
농림 · 수산	3.6	50.0	16.7	2.4	4.8	22.6	100.0
생물 · 화학 · 환경	6.4	45.4	18.6	2.4	5.5	21.6	100.0
생활과학	5.3	52.9	20.6	1.1	9.5	10.6	100.0
수학 · 물리	6.8	48.6	12.2	2.7	16.2	13.5	100.0
천문 · 지리	4.9	41.5	15.9	6.7	17.7	13.4	100.0
의료	4.1	4.1	4.1	-	-	87.8	100.0
간호	-	-	8.6	-	-	91.4	100.0
약학	18.4	42.1	10.5	-	-	28.9	100.0
치료 · 보건	2.9	38.2	11.8	-	11.8	35.3	100.0
디자인	6.6	67.5	12.6	4.6	4.6	4.0	100.0
응용예술	16.0	50.0	20.0	4.0	4.0	6.0	100.0
무용 · 체육	1.4	49.3	7.2	-	11.6	30.4	100.0
미술 · 조형	19.8	56.4	4.0	-	14.9	5.0	100.0
연극 · 영화	-	-	-	-	-	-	-
음악	37.1	37.9	0.8	-	14.5	9.7	100.0

주 : 1) 기타에는 병원,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정부기관, 법인단체 등이 포함됨.

2)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제시 안함.

다음으로 졸업생들이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Ⅳ-23>과 <표 Ⅳ-24>에서 보듯이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모두 중소기업으로의 진출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학교(42.9%)보다는 전문대(59.6%)가 보다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의 경우 공공부문 및 기타 분야 직장으로의 진출비율이 17.5%, 대기업 15.8% 등의 순서를 나타냈고, 대학교의 경우 대기업 21.6%, 공공부문 및 기타 16.1%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전공별로도 대부분의 전공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진출이 가장 많았으나, 다만 의약계열의 경우는 졸업생 대다수가 병원 등의 분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질성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이 주장의 이면에는 지역간 균형적 인력양성 및 활용이라는 전제조건이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권과 도권간 인력유출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순유입이 높은 실정에 있다. <표 Ⅳ-25>에서 보듯이, 전체 취업자의 37.8%가 서울 소재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12.8%), 부산시(9.5%), 대구시(7.8%) 등의 순서로서 인력의 상당수가 도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자신이 졸업한 지역과 현재 근무지가 동일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55.7%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나마 주로 대도시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졸업한 지역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지역간 일치비중이 높은 지역은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있는 제주도(86.8%)를 제외하고 경상남도(75.0%)와 서울시(73.4%) 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50% 미만을 밑도는 지역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동일지역으로의 취업비중보다는 오히려 서울시 지역으로의 취업비중이 높은 지역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Ⅳ-25> 지역별 취업현황

(단위: %)

졸업 지역 \ 직장 위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서울	73.4	0.8	3.1	0.4	0.2	0.4	0.4	17.1	0.9	0.6	0.9	0.1	0.2	0.9	0.6	-	100.0
부산	8.3	68.5	0.9	0.2	-	0.3	3.2	2.4	0.4	0.1	0.5	0.4	0.1	1.4	12.9	0.3	100.0
인천	46.3	0.3	22.5	-	0.3	1.0	0.7	19.8	2.0	0.3	2.3	0.7	0.3	1.0	2.3	-	100.0
대구	5.9	2.5	0.8	65.6	-	-	2.7	2.7	0.2	0.8	0.8	0.2	-	15.3	2.7	-	100.0
광주	14.7	0.5	0.7	0.9	52.0	0.5	0.5	6.8	-	0.2	1.8	2.5	18.8	-	0.2	-	100.0
대전	20.1	0.5	2.0	16.4	0.2	32.4	0.3	7.4	0.6	3.3	9.6	0.5	0.5	5.1	1.0	-	100.0
울산	8.7	11.2	-	0.7	-	-	61.6	2.9	-	0.7	1.1	-	1.1	5.4	6.5	-	100.0
경기	57.8	0.6	5.4	0.4	0.3	0.2	0.1	31.4	0.8	0.4	0.8	0.5	0.2	0.8	0.1	0.2	100.0
강원	36.6	-	2.0	1.0	-	0.5	-	22.4	33.7	1.0	0.5	1.0	0.5	0.5	0.5	-	100.0
충북	32.1	-	5.2	-	-	2.8	-	21.7	1.6	26.1	6.4	1.2	0.8	1.2	0.8	-	100.0
충남	17.4	-	2.2	-	4.3	8.7	-	23.9	2.2	4.3	37.0	-	-	-	-	-	100.0
전북	18.3	0.6	3.0	0.3	1.2	2.4	-	10.7	0.9	0.9	3.3	54.4	3.6	0.3	0.3	-	100.0
전남	12.7	-	-	-	9.8	1.0	-	4.9	2.9	-	2.0	2.9	60.8	-	2.9	-	100.0
경북	13.9	1.5	2.0	37.1	-	1.2	2.9	4.6	2.4	0.5	0.7	0.2	-	30.5	2.2	0.2	100.0
경남	7.9	6.8	1.3	0.7	-	0.2	2.2	2.0	1.1	0.2	0.2	-	0.2	2.0	75.0	0.2	100.0
제주	8.3	0.8	-	-	-	-	0.8	2.5	-	-	-	0.8	-	-	-	86.8	100.0
전체	37.8	9.5	3.0	7.8	2.5	4.0	2.6	12.8	1.5	1.4	2.2	2.3	1.8	3.6	5.8	1.1	100.0

다. 근로조건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진출분야와 아울러 취업의 질적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성과지표다.

먼저 소득수준을 보면, <표 Ⅳ-26>에서 보듯이 소득을 모른다거나 등의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연봉수준은 평균 1,787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는 1,554만원으로 대학교의 2,016만원보다 46만여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진 수준이다.[11] 또한 성별로 보면, 남녀간 임금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

11) 2001년도 조사결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는 1,484만원으로, 대학교 1,899만원보다 40여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만 외(2002),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자는 2,064만원의 연봉을, 여자의 경우는 1,54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급 · 성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의 연봉은 1,385만원으로서 대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받는 연봉인 2,236만원의 6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를 졸업한 남성은 1,819만원(남성 대학교 졸업자 기준 81.4%),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1,748만원(남성 대학교 졸업자 기준 78.2%)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6> 성별 학교 · 급별 임금 격차

(단위: 만원)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554	2,016	1,787
남자	1,819	2,236	2,064
여자	1,385	1,748	1,541

한편 학교급 · 전공별 소득수준을 보면, <표 Ⅳ-27> 및 <표 Ⅳ-28>에서 나타나듯이 먼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는 기계 · 금속 관련 학과가 연평균 1,907만원의 연봉을 받음으로써 조사대상 학과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이공계 관련 학과(1,838만원), 화공 관련 전공(1,790만원), 간호학과(1,779만원) 둥의 순서였으나, 음악 관련 학과(1,038만원)와 유아교육 학과(1,176만원) 등은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약학이 3,044만원으로서 가장 높은 가운데 의료 2,440만원, 간호 2,381만원 등 의약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무용 · 체육(1,690만원), 미술 · 조형(1,573만원), 음악(1,561만원) 등 예체능계열은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과간 연봉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전문대 졸업자의 계열별 임금수준

(단위: 만원)

	연간 수준
전체	1,554
언어 · 문학	1,459
인문과학	1,311
경영 · 경제	1,594
법률	-
사회과학	1,453
교육일반	1,468
유아교육	1,176
특수교육	-
건축	1,559
토목 · 도시	1,774
교통 · 운송	-
기계 · 금속	1,907
전기 · 전자	1,709
정밀 · 에너지	1,520
소재 · 재료	1,607
컴퓨터 · 통신	1,550
산업	1,671
화공	1,790
기타	1,838
농림 · 수산	-
생물 · 화학 · 환경	1,547
생활과학	1,358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1,488
간호	1,779
치료 · 보건	1,534
디자인	1,472
응용예술	1,341
무용 · 체육	1,854
미술 · 조형	-
연극 · 영화	-
음악	1,038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제시 안함.

<표 Ⅳ-28>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임금수준

(단위: 만원)

	연간 수준
전체	2,016
언어 · 문학	1,960
인문과학	1,772
경영 · 경제	2,209
법률	2,103
사회과학	1,898
교육일반	1,927
유아교육	1,523
특수교육	-
초등교육	2,114
중등교육	2,066
건축	1,863
토목 · 도시	2,107
교통 · 운송	2,244
기계 · 금속	2,241
전기 · 전자	2,285
정밀 · 에너지	-
소재 · 재료	2,114
컴퓨터 · 통신	2,094
산업	2,110
화공	2,228
기타	2,200
농림 · 수산	1,910
생물 · 화학 · 환경	1,876
생활과학	1,726
수학 · 물리	2,055
천문 · 지리	2,027
의료	2,440
간호	2,381
약학	3,044
치료 · 보건	1,720
디자인	1,844
응용예술	1,877
무용 · 체육	1,690
미술 · 조형	1,573
연극 · 영화	-
음악	1,561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제시 안함.

한편, 임금수준 못지 않게 자신이 대학 및 전문대 재학시 배운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는가, 또한 현 직장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였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등 임금수준 이외 주관적 관점에서의 근로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노동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먼저 직업세계로의 이행결과는 대학교를 졸업했느냐 전문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직무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및 <표 Ⅳ-30>에서 보듯이 전공의 직무유용성은 전문대학과 대학교 모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경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 졸업자(64.7%)보다도 대학교 졸업자(71.3%)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공별로는 대학교에서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전문대에서는 의약계열이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유용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과는 직업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도 있다. 이는 직업 자체가 특정 학과 전공자를 요구하거나 보다 넓은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과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식을 교육하거나 기초부문에 대한 지식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전공과 직업과의 관련성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다수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6% 내외가 만족하고 있다고 하여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졸업생들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의 정착도가 대단히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체 졸업자들 중 80 90% 정도의 졸업생들이 현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일치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대 졸업생 중에서는 77.5%의 졸업생이, 대학교 졸업생 중에서는 75.0%의 졸업생이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비해 매우 쉽거나 쉽다고 응답하여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과 직무간의 관계

(단위: %)

	직무만족도		직무유용성		학력일치도		전체
	불만족	만족	도움 않됨	도움	쉬움	어려움	
전체	13.7	86.3	35.3	64.7	77.5	22.5	100.0
언어 · 문학	12.7	87.3	43.1	56.9	84.6	15.4	100.0
인문과학	6.5	93.5	56.5	43.5	78.3	21.7	100.0
경영 · 경제	13.3	86.7	39.4	60.6	80.1	19.9	100.0
법률	-	-	-	-	-	-	-
사회과학	11.3	88.7	35.3	64.7	77.1	22.9	100.0
교육일반	11.1	88.9	72.2	27.8	88.9	11.1	-
유아교육	10.0	90.0	14.3	85.7	82.2	17.8	100.0
특수교육	-	-	-	-	-	-	-
건축	24.0	76.0	45.5	54.5	74.4	25.6	100.0
토목 · 도시	15.9	84.1	38.9	61.1	74.3	25.7	100.0
교통 · 운송	-	-	-	-	-	-	-
기계 · 금속	13.0	87.0	32.7	67.3	72.5	27.5	100.0
전기 · 전자	16.3	83.7	40.6	59.4	72.2	27.8	100.0
정밀 · 에너지	12.0	88.0	8.0	92.0	72.0	28.0	100.0
소재 · 재료	12.5	87.5	47.9	52.1	72.9	27.1	100.0
컴퓨터 · 통신	14.5	85.5	36.1	63.9	78.5	21.5	100.0
산업	13.8	86.2	58.6	41.4	62.1	37.9	100.0
화공	10.5	89.5	36.8	63.2	78.9	21.1	100.0
기타	12.9	87.1	36.5	63.5	58.8	41.2	100.0
농림 · 수산	18.8	81.3	50.0	50.0	75.0	25.0	-
생물 · 화학 · 환경	13.1	86.9	57.9	42.1	80.4	19.6	100.0
생활과학	12.5	87.5	46.0	54.0	84.0	16.0	100.0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12.5	87.5	50.0	50.0	78.1	21.9	100.0
간호	11.7	88.3	6.7	93.3	60.9	39.1	100.0
치료 · 보건	14.8	85.2	16.3	83.7	76.2	23.8	100.0
디자인	14.0	86.0	36.9	63.1	81.4	18.6	100.0
응용예술	13.0	87.0	37.9	62.1	84.6	15.4	100.0
무용 · 체육	7.1	92.9	35.7	64.3	80.4	19.6	100.0
미술 · 조형	-	-	-	-	-	-	-
연극 · 영화	-	-	-	-	-	-	-
음악	3.7	96.3	18.5	81.5	85.2	14.8	100.0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제시 안함.

<표 Ⅳ-30>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과 직무와의 관계

(단위: %)

	직무만족도		직무유용성		학력일치도		전체
	불만족	만족	도움않됨	도움	쉬움	어려움	
전체	13.5	86.5	28.7	71.3	75.0	25.0	100.0
언어 · 문학	13.7	86.3	38.0	62.0	78.8	21.2	100.0
인문과학	11.7	88.3	37.6	62.4	77.1	22.9	100.0
경영 · 경제	14.3	85.7	27.3	72.7	75.3	24.7	100.0
법률	5.9	94.1	32.4	67.6	63.2	36.8	100.0
사회과학	13.4	86.6	38.1	61.9	76.8	23.2	100.0
교육일반	3.8	96.2	13.2	86.8	79.2	20.8	100.0
유아교육	10.7	89.3	7.1	92.9	78.6	21.4	100.0
특수교육	5.3	94.7	5.3	94.7	73.7	26.3	-
초등교육	8.8	91.2	2.9	97.1	73.5	26.5	100.0
중등교육	6.2	93.8	14.0	86.0	84.6	15.4	100.0
건축	18.8	81.3	19.5	80.5	71.9	28.1	100.0
토목 · 도시	20.8	79.2	31.2	68.8	64.9	35.1	100.0
교통 · 운송	16.3	83.7	26.0	74.0	67.3	32.7	100.0
기계 · 금속	16.8	83.2	30.0	70.0	68.4	31.6	100.0
전기 · 전자	17.9	82.1	28.4	71.6	68.2	31.8	100.0
정밀 · 에너지	-	-	-	-	-	-	-
소재 · 재료	12.2	87.8	38.9	61.1	74.0	26.0	100.0
컴퓨터 · 통신	15.1	84.9	18.2	81.8	71.7	28.3	100.0
산업	25.0	75.0	28.6	71.4	75.0	25.0	100.0
화공	18.6	81.4	40.2	59.8	69.6	30.4	100.0
기타	13.2	86.8	36.8	63.2	65.8	34.2	100.0
농림 · 수산	9.5	90.5	33.3	66.7	82.1	17.9	100.0
생물 · 화학 · 환경	16.0	84.0	40.2	59.8	74.9	25.1	100.0
생활과학	10.5	89.5	36.1	63.9	73.3	26.7	100.0
수학 · 물리	12.0	88.0	28.0	72.0	89.3	10.7	100.0
천문 · 지리	14.0	86.0	37.8	62.2	78.7	21.3	100.0
의료	12.0	88.0	2.0	98.0	46.0	54.0	100.0
간호	16.7	83.3	5.6	94.4	38.9	61.1	100.0
약학	10.5	89.5	-	100.0	68.4	31.6	100.0
치료 · 보건	8.8	91.2	20.6	79.4	79.4	20.6	100.0
디자인	14.5	85.5	16.4	83.6	75.0	25.0	100.0
응용예술	15.7	84.3	21.6	78.4	70.6	29.4	100.0
무용 · 체육	8.5	91.5	26.8	73.2	81.7	18.3	100.0
미술 · 조형	10.9	89.1	20.8	79.2	84.2	15.8	100.0
연극 · 영화	-	-	-	-	-	-	-
음악	5.6	94.4	9.5	90.5	89.7	10.3	100.0

주 : 조사대상자수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제시 안함.

라. 노동시장 기준에서 본 학과전망

사회경제적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해 대학이나 전문대학들의 학과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전공이 계속 출현할 뿐 아니라 기존의 학과 역시 명칭이나 교육과정의 성격이 변화한다. 다양하고 많은 대학의 학과 가운데 특정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학과 선택을 위해서는 졸업 후 자신의 진로, 즉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설계와 연계되지 않는 대학교육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많은 초 · 중 · 고 학생들과 학부모, 진학담당자, 그리고 입시관계자들에게 어느 학과를 전공해야 만이 앞으로의 직업생활,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는 의구심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과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이 전공했던 학과에 대해 직접 평가 또는 전망한 정보는 이러한 사회적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기초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졸업생들이 취업과 학문적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인이 전공한 학과 전망이 어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은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긍정적으로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표 Ⅳ-31>과 <표 Ⅳ-32>에서 나타나듯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는 응답자의 41.4%가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40.7%는 보통, 17.9%는 나쁨이라고 하였으며,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응답자의 42.9%가 좋음, 36.6%는 보통, 20.6%는 나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Ⅳ-31> 전문대 졸업생들이 본 향후 3년 간 학과전망

(단위: %)

	나쁨	보통	좋음	전체
전체	17.9	40.7	41.4	100.0
언어 · 문학	14.5	39.0	46.5	100.0
인문과학	28.1	43.8	28.1	100.0
경영 · 경제	13.4	43.2	43.4	100.0
법률	7.1	42.9	50.0	100.0
사회과학	13.5	40.1	46.4	100.0
교육일반	13.0	43.5	43.5	100.0
유아교육	5.3	31.6	63.1	100.0
특수교육	-	20.0	80.0	100.0
건축	34.8	40.3	24.9	100.0
토목 · 도시	23.1	42.5	34.3	100.0
교통 · 운송	9.1	9.1	81.8	100.0
기계 · 금속	26.2	37.2	36.6	100.0
전기 · 전자	20.6	43.7	35.6	100.0
정밀 · 에너지	9.8	43.9	46.3	100.0
소재 · 재료	27.0	34.9	38.1	100.0
컴퓨터 · 통신	17.4	43.1	39.5	100.0
산업	21.6	56.8	21.6	100.0
화공	16.7	57.4	25.9	100.0
기타	23.8	45.7	30.5	100.0
농림 · 수산	15.0	45.0	40.0	100.0
생물 · 화학 · 환경	24.8	38.6	36.6	100.0
생활과학	18.6	46.8	34.6	100.0
수학 · 물리 · 천문 · 지리	23.8	45.2	31.0	100.0
간호	2.6	28.1	69.4	100.0
치료 · 보건	22.7	36.6	40.8	100.0
디자인	17.7	43.9	38.4	100.0
응용예술	19.8	36.4	43.7	100.0
무용 · 체육	2.7	37.0	60.3	100.0
미술 · 조형	9.1	31.8	59.1	100.0
연극 · 영화	18.2	27.3	54.5	100.0
음악	9.8	41.5	48.8	100.0

<표 Ⅳ-32> 대학교 졸업생들이 본 향후 3년 간 학과전망

(단위: %)

	나쁨	보통	좋음	전체
전체	20.6	36.6	42.9	100.0
언어 · 문학	28.1	38.0	34.0	100.0
인문과학	32.5	40.7	26.8	100.0
경영 · 경제	9.3	34.7	56.0	100.0
법률	12.4	37.2	50.4	100.0
사회과학	21.8	43.4	34.8	100.0
교육일반	9.0	41.0	50.0	100.0
유아교육	4.9	39.0	56.1	100.0
특수교육	5.3	5.3	89.5	100.0
초등교육	-	25.0	75.0	100.0
중등교육	15.5	32.0	52.5	100.0
건축	48.0	34.3	17.7	100.0
토목 · 도시	32.2	45.5	22.3	100.0
교통 · 운송	21.0	27.3	51.7	100.0
기계 · 금속	25.5	41.0	33.4	100.0
전기 · 전자	12.5	27.7	59.9	100.0
정밀 · 에너지	30.4	39.1	30.4	100.0
소재 · 재료	21.8	37.0	41.2	100.0
컴퓨터 · 통신	11.7	30.7	57.5	100.0
산업	10.4	31.3	58.3	100.0
화공	28.7	39.1	32.2	100.0
기타	27.7	27.7	44.6	100.0
농림 · 수산	34.2	33.3	32.5	100.0
생물 · 화학 · 환경	27.2	36.2	36.7	100.0
생활과학	22.6	43.2	34.2	100.0
수학 · 물리	30.7	41.6	27.7	100.0
천문 · 지리	23.0	42.2	34.8	100.0
의료	5.6	38.9	55.6	100.0
간호	2.6	23.1	74.4	100.0
약학	3.4	25.4	71.2	100.0
치료 · 보건	27.9	37.2	34.9	100.0
디자인	8.6	33.3	58.1	100.0
응용예술	23.2	46.4	30.4	100.0
무용 · 체육	16.7	29.2	54.2	100.0
미술 · 조형	24.8	39.6	35.6	100.0
연극 · 영화	19.0	42.9	38.1	100.0
음악	15.7	44.3	40.0	100.0

Ⅴ. 요약 및 결론

경제·사회의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해 대학이나 전문대학들의 학과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전공이 계속 출현할 뿐 아니라 기존의 학과 역시 명칭이나 교육과정의 성격이 변화한다. 다양하고 많은 대학의 학과 가운데 특정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학과 선택을 위해서는 졸업 후 자신의 진로, 즉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많은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진학담당자, 그리고 입시관계자들에게 어느 학과를 전공해야 만이 앞으로의 직업생활,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는 의구심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이 전공했던 학과에 대해 직접 평가 또는 전망한 정보는 이러한 사회적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기초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주기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생성된 기초통계의 결과는 본 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출판하고 있는『미래의 직업세계』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된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의 핵심 틀이 되는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의 설계 및 조사과정의 타당성과 조사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제Ⅱ장의 졸업생 조사 실시를 위한 모집단 설정과 표본 틀 구성, 표본추출 과정에서부터 제Ⅲ장의 설문항목 구성과 조사 기준 및 학과분류 기준 마련, 그리고 제Ⅳ장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학교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transition)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들을 고려하면, 조사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졸업생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사규모가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유의한 수준으로 도출하기 이해서는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규모 작음에 따라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결과의 확보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며, 특히 보다 유용한 「전공-직업」행렬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모집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모집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졸업생들의 모집단에 대한 특성이 확인되어야 조사결과를 모집단의 특성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졸업생 전수표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집단 구성을 위해 모든 전문대 및 대학교로부터 졸업생들의 전체 명부의 확보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틀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졸업생 개인 식별을 위한 코드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률상에 위배되는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의 도입을 통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개별정보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는 명부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 및 대학교의 철저한 졸업생 명부관리가 요망된다.

셋째, 조사내용의 추가적인 보완과 아울러 조사를 위한 전공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전공 분류 체계는 중분류 수준에서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세분류 수준 이하, 특히 학과 단위의 분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학과별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노동시장의 이행과정을 포착하는데 실효성을 가지도록 전공분류의 최종 보완을 필요로 한다.

넷째, 졸업생 조사가 기초통계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시계열자료를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정보는 주로 개인들이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직업세계의 변화 과정에서 선택하는 주관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의 상태와 다른 시점의 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분석은 수시로 변화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계열 자료는 신규인력의 공급 전망과 신규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졸업생 조사도 시계열 통계로서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 조사를 법률상에 명시화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다섯째,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적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매년 횡단면 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횡단면 조사에 사용된 표본으로부터 동일한 졸업생을 추적조사(follow-up survey)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적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종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교육의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전공-직무의 불일치의 지속 정도를 파악하여 노동시장에서 수급의 질적 불일치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형만 · 장홍근 · 전재식 · 유성재(2001), 『대학 ·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용역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 · 장홍근 · 전재식 · 김철희 · 유성재(2002), 『전문대 · 대학 졸업생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용역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재민 외(2003),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및 진로지도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미래유망직업전망』, 한국과학문화재단.

방하남 · 김기헌(2002),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이병희 · 안주엽 · 전병유 · 장수명 · 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2002), 「전직 실업자의 구직형태, 임금유보성향 및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5권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 손유미 · 노일경(2002), 『여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유망직업연구』, 여성부.

한상근 · 정용석 · 김나라(2002), 『직업변동에 관한 연구(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 · 임언 · 이지연 · 이경상 · 정윤경(2002),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추진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최근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Krivet Fellow Forum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한국교육개발원(2003), 『2003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1), 'World of Work: overview and Trends', *Job Futures 200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1), ‘Outlooks by Occupation’, *Job Futures 200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1),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Post-secondary Graduates in Canada: Research Findings Based on the National Graduate Surveys’, *Applied Research Bulletin*. Special Edition.

M. Spence(1973), "Job Market Signal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arkin F(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London: MacGibon & Kee.

Stigler, G.(1962),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T. Lancaster(1979), 'Econometric Methods for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Econometrica*, Vol.47, July 1979.

붙임 :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 조사

출생년도	성별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조사원성명

<공통항목 : 인적사항 항목>

1. 복수(이중) 전공	2. 부전공	3. 학점	4. 혼인상태
과 * 학과코드 □□□□□□□□□□□□	과 * 학과코드 □□□□□□□□□□□□	____점(____점 만점) * 학점환산□□□점 (100점 만점 기준)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5. 병역여부	6. 출신고교 계열	7. 출신고교 소재지
1. 현역 4. 병역특례 2. 보충역 5. 미필 3. 면제	1. 인문계 고교 2. 외국어고 3. 과학고 4. 예체능계 고교 5. 실업고(상 · 농 · 공 · 수산 등) 6. 검정고시*(8번으로)*	_____시(도) 지역 : □□

<공통항목 : 학과지원동기 및 만족도>

8. 전공지원(선택)의 주된 동기	9. 전공만족도	10. 교과과정 만족도	향후 전공 전망
1. 직업 및 취업전망 2. 수능점수 및 성적 3. 학문적 흥미 및 적성 4. 주위(부모 · 친지) 권유 5.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6. 기타 ( )	만약 귀하가 다시 대학에 입학한다면, 지금전공을 또다시 선택할 것입니까? 1. 아니오 2. 예	전공과목의 교과과정에 만족하십니까? 1. 아니오 2. 예	11. 취업과 학문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전공학과는 향후 3년간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12. 취업과 학문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전공학과는 향후 10년 후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공통항목 : 재학 중 휴학 여부 항목>

13. 재학 중 휴학 여부	휴학 이유		
귀하는 대학 재학 중 휴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0. 없음 *(17번으로)* 1학기 □년 2학기 □년 3학기 □년 4학기 □년 5학기 □년 6학기 □년 7학기 □년 8학기 □년 9학기 □년10학기 □년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3학기, (3학년 2학기)=6학기에 해당	14. 첫번째 휴학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군 입대 2. 수능시험(학력고사) 준비 3. 대학 편입학시험 준비 4. 대학원 진학시험 준비 5. CPA 등 자격증 준비 6. 입법/ 사법/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 7.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 8. 해외어학연수 및 기타 해외연수 9. 유학준비 10. 가사, 결혼, 건강 등 개인적 사정 11. 재정적 곤란 12. 취업 준비 13. 창업 준비 14. 아르바이트 15. 기타 ( )	15. 두번째 휴학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군 입대 2. 수능시험(학력고사) 준비 3. 대학 편입학시험 준비 4. 대학원 진학시험 준비 5. CPA 등 자격증 준비 6. 입법/ 사법/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 7.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 8. 해외어학연수 및 기타 해외연수 9. 유학준비 10. 가사, 결혼, 건강 등 개인적 사정 11. 재정적 곤란 12. 취업 준비 13. 창업 준비 14. 아르바이트 15. 기타 ( )	16. 세번째 휴학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군 입대 2. 수능시험(학력고사) 준비 3. 대학 편입학시험 준비 4. 대학원 진학시험 준비 5. CPA 등 자격증 준비 6. 입법/ 사법/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 7.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 8. 해외어학연수 및 기타 해외연수 9. 유학준비 10. 가사, 결혼, 건강 등 개인적 사정 11. 재정적 곤란 12. 취업 준비 13. 창업 준비 14. 아르바이트 15. 기타 ( )

<공통항목 : 학원, 직업훈련, 자격 관련 항목>

첫 대학 재학 중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			첫 대학 졸업 후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7. 직업기술학원(정보처리)	0	□□개월	26. 직업기술학원(정보처리)	0	□□개월
18. 직업기술학원(정보처리 제외)	0	□□개월	27. 직업기술학원(정보처리 제외)	0	□□개월
19. 외국어학원	0	□□개월	28. 외국어학원	0	□□개월
20. 인문 · 사회계 학원	0	□□개월	29. 인문 · 사회계 학원	0	□□개월
21. 경영실무계 학원	0	□□개월	30. 경영실무계 학원	0	□□개월
22. 예체능계 학원	0	□□개월	31. 예체능계 학원	0	□□개월
23. 민간직업전문학교	0	□□개월	32. 공공직업훈련기관	0	□□개월
			33. 민간직업훈련시설	0	□□개월
17-23번 중 전혀 없을 경우는 26번으로			***26-33번 중 전혀 없을 경우는 36번으로***		

첫 대학 재학 중 학원/직업훈련을 받은 주된 이유	첫 대학 졸업 후 학원 및 직업훈련을 받은 주된 이유
24. 첫 대학 재학 중 학원/ 직업훈련을 받았던 주된 이유는? 1. 전공분야에 대한 (실무)훈련을 받기 위해서 2. 전공분야 이외의 (실무)훈련을 받기 위해서 3.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4. 개인의 발전, 승진을 위해서 5. 교과과정에 없으나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6.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므로 7. 기타 ( )	34. 첫 대학 졸업 후 학원/ 직업훈련을 받았던 주된 이유는? 1. 전공분야에 대한 (실무)훈련을 받기 위해서 2. 전공분야 이외의 (실무)훈련을 받기 위해서 3.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4. 개인의 발전, 승진을 위해서 5. 교과과정에 없으나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6.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므로 7. 기타 ( )
첫 대학 재학 중 학원/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의 도움 여부	**첫 대학 졸업 후 학원/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의 도움 여부**
25. 첫 대학 재학 중 학원/ 직업훈련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35. 첫 대학 졸업 후 학원/ 직업훈련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첫 대학 재학 중 일을 한 경험과 취업에의 도움 여부			
36. 정규직	0. 없음	1. 도움 안됨	2. 도움
37.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개인과외지도 제외)	0. 없음	1. 도움 안됨	2. 도움
38. 현장실습	0. 없음	1. 도움 안됨	2. 도움
39. 창업	0. 없음	1. 도움 안됨	2. 도움

현재 자격증 취득 현황

40.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단, 운전면허는 제외)

0. 없음***(42번으로)*** _____개

41. 그 중 귀하의 직업경력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오.

◆ 자격명칭 _____ ◆ 자격등급 _____ ◆ 취득년월 _____년____월

◆ 자격종류 ① 국가자격 ② 국가기술자격 ③ 민간공인자격 ④ 민간자격 ⑤ 국제공인자격 ⑥ 기타

◆ IT 관련 자격 구분 ① IT관련 ② IT 비관련

◆ 취득당시전공일치여부 ① 일치 ② 불일치

외국어 시험 현황

42. 귀하는 외국어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험점수는 몇 점입니까?

0. 없음 1. TOEIC □□□점 2. TOEFL □□□점 3. TEPS □□□점 4. JPT □□□점 5. 기타( ) □□□점

<공통항목 : 졸업 후 진학/편입/입학관련 항목>

43. 현재의 학교 재학 여부	현재의 교육상황				
	44. 재학 중 학교	45. 학교진학 방법	46. 수학상태	47. 학과	48. 학교소재지
대학 졸업 후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0. 아니오*(52번으로)* 1. 예	1. 전문대 2. 대학교 3.방송통신대학 4. 사이버대학 5. 대학원	1. 편입 2. 입학 3.동일학교진학 4.타학교 진학	1. 재학 2. 휴학	_____과 * 학과코드 □□□□□□□□□□□□	____시(도) 지역 : □□

49. 추가교육(과정)의 주된 이유	50. 전공선택의 주된 이유	51. 전공변경의 주된 이유
1. 취업난 2. 전직 3. 학력 상승 4. 주변(부모/ 친지 등)의 권유 5. 발전가능성 6. 학문적 흥미 7. 기타 ( )	1. 전공변경 2. 전공심화*(이하 52번으로)* 3. 적성 4. 주변(부모/ 친지 등)의 권유 5. 발전가능성 6. 취업전망 7. 기타 ( )	1. 적성에 맞지 않아서 2. 발전가능성이 없어 3. 취업난 4. 전직 5. 주변의 권유 6. 기타 ( )

<공통항목 : 구직조건과 구직과정>

52. 취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1. 준비 안 했음
2. 입학 시점
3. 1학년
4. 2학년
5. 3학년
6. 4학년
7. 졸업 시점

53. 귀하는 졸업 이후 6개월 동안 구직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음
2. 자영업 준비
3. 창업 준비 *(이상 55번으로)*
4. 있음

54.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구하였습니까?
1. 관리직
2. 전문직 ·기술직
3. 사무직
4. 서비스 ·판매직
5. 농림어업직
6. 기능직
7. 단순노무직

55. 귀하는 구직 당시 만약 취업이 된다면 그 일자리가 출신대학과 다른 지역(시도 단위 기준)이더라도 갈 의사가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56. 귀하는 구직기간 중 용돈이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가지만 고르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2. 배우자에게 용돈 받아
3. 아르바이트를 통해
4. 친구/ 친척의 도움
5. 그동안의 저축을 통해
6. 신용카드를 이용
7. 은행으로부터 대출
8. 부동산/ 집등을 팔아
9. 기타( )

57. 귀하는 첫 직장을 얻기 위해 몇 번이나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까?
0. 없음*(59번으로)* □□번

58. 귀하는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언제부터 회사에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습니까?
졸업 전 □□개월
또는 졸업 후 □□개월

59. 귀하는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면접한 회사는 몇 개입니까?(서류전형 단계는 제외)
0. 없음 □□번

60. 귀하가 구직 당시 받고자 희망한 임금 수준은?
월평균 □□□□□ 만원
연 봉 □□□□□ 만원
(* 둘 중 하나 선택)

61. 구직 당시 귀하에게 회사들로부터 제안 받은 임금수준은?
(여러 회사일 경우 최고 수준 기재)
0. 제안 받은 적 없음
◆ 제안 받은 적 있음
↳ 월평균 □□□□□ 만원
연 간 □□□□□ 만원
(* 둘 중 하나 선택)

<공통항목 :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

62.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일하였음 *(가1번으로)*
2. 일시휴직
3. 구직활동
4. 육 아
5. 가 사
6. 통학
7. 정신장애
8. 기타( )

63.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무급가족종사자

(가1번으로)

3. 없었음

64.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있었음 20. 없었음

↳ 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 병 · 사고
12. 연가, 교육
13. 가족적 이유
14. 노사분규
15. 조업중단
16. 기타( )

(가2 번으로)

65.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나1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나2번으로)*

<취업자 항목>

가1. 지난 주에 그 일을 총 몇 시간 했습니까?

□□□ 시간

1.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65번으로)*
2. 1 35시간
3. 36시간 이상

가2. 현 직장(일)은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가3. 현 직장(일)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개월

가4.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산업 코드 : □□□
IT산업코드 : □□□

가5. 그 사업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_____시(도) 지역코드 : □□

가5-1.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6.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일의 종류(직업)

표준직업분류코드 : □□□
고용직업분류 코드 : □□□□

가7. 다니시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몇 명입니까?

1. 1 4인
2. 5 9인
3. 10 29인
4. 30 49인
5. 50 99인
6. 100 299인
7. 300 499인
8. 500 999인
9. 1,000인 이상

가8.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비임금근로자

1. 고용주
2. 자영자
3. 무급가족종사자

(가11번으로)

◆ 임금근로자

4.상용
5.임시
6.일용

가9. 직장(일)에서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
4. 임시직원
5. 파견근로
6. 파견근로

가10. 직장의 유형은 어디에 속합니까?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민간기업연구소
3. 벤처기업
4. 외국계기업
5.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6.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7. 대학
8. 교육기관(초/ 중/ 고 등)
9.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10. (재단/ 사단)법인단체
11. 병원
12. 프리랜서(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13. 기타( )

가11. 현 직장(일)은 주로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11.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조합안정기관 등록
12.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
13. 취직시험
14. 지면 전자 벽보 등 구인 구직정보
15. 인터넷 망 이터넷 이력 DB
16. 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
17. 학교 학원 추천
18. 사업체 방문
19. 친구 친지 소개
20. 인터넷원제를 통해
21. 기타( )

가12.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3가지만 고르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1. 임금 또는 보수
12. 업무 내외 노동조건
13. 개인의 성장가능성
14. 직업의 안정성
15. 사회적 지위
16. 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17. 적성 및 자격과 일치해서
18. 직장의 지리적 위치
19. 상사 노하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20. 생활특례
21. 기타 ( )

가13. 현재의 직장(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다소 만족 *(가15번으로)*
4. 매우 만족 *(가15번으로)*

가14.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일)이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임금이 낮아서
12. 노동조건이 좋지 않아서
13. 적성 및 자격과 맞지 않아서
14. 발전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15. 고용이 불안정해서
16. 개인 및 가족적 이유로
17. 업무의 자율성이 없어서
18. 기타( )

가15.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일)은 학교전공과 밀접한 분야입니까?

1. 전혀 관계 없음
2. 별로 관계 없음
3. 다소 밀접함 *(가17번으로)*
4. 매우 밀접함 *(가17번으로)*

가16.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일)이 전공과 밀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는 것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적성에 맞는 직장(일)을 구할 수 없어서
2. 임금(봉수)조건이 만족스러워서
3.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4. 직장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5. 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6. 현재 일이 특별한 전공을 필요로 하지 않아
7. 기타 ( )

<취업자 항목 계속>

가17.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됨 2. 다소 도움이 안됨
3. 다소 도움이 됨 4. 매우 도움이 됨

가18. 현재 하고 있는 직장(일)의 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쉬움 2. 다소 쉬움
3. 다소 어려움 4. 매우 어려움

가19. 현재 직장에서 일하면서 느끼기에 대학교(전문대) 재학시 배웠으면 가장 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술(능력)은 무엇입니까?
1.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회화 능력
2.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독해 능력
3. 컴퓨터 사용 능력(EXCEL, Powerpoint, HWP 등 OA)
4. 프로그램밍 등 전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
5. 프리젠테이션(발표) 능력
6. 전공 심화
7. 기타 ( )

가20. 현재 직장(일)에서 받고 있는 (세전)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연 간 □□□□만원
*둘 중 하나만 선택

가21. 현 직장(일)에서 회사나 고용보험 지원으로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입사원 교육 제외)
1. 현재 받고 있음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3. 없음***(가23번으로)***

가22.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일

가23 현 직장(일)을 옮기고 싶습니까?
◆ 그러함 30. 그렇지 않음***(가28번으로)***
↳ 그 주된 이유는?
11. 임금(보수)이 낮아서
12. 임금 이외 근무조건 안 좋아
13. 전공 및 자격과 맞지 않아서
14. 발전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15. 고용이 불안정해서
16. 개인 및 가족적 이유로
17.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18. 직장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19. 업무의 자율성이 없어서
20. 기타( )

가24. 전직희망 직장(일)의 선택기준은 주로 무엇입니까?
1. 임금 및 보수
2. 전공분야
3. 적성
4. 사회적 인식 및 명성
5. 임금 외 근로조건
6. 개인의 성장가능성
7. 기타( )

가25. 전직을 위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 현재에는 전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2. 적극적 구직활동
3. 직업교육 훈련
4. 자격증 취득준비
5. 진학 및 편 · 입학 준비
6. 창업 준비
7. 기타( )

가26.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1. 관리직 5. 농림어업직
2. 전문직 기술직 6. 기능직
3. 사무직 7. 단순노무직
4. 서비스 판매직

가27. 전직희망 직업이 학교 전공과 일치하였으면 합니까?
1. 전혀 무관해도 무방
2. 다소 무관해도 무방
3. 대체로 일치해야
4. 반드시 일치해야

가28. 현 직장(일)은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직장입니까?
1. 예 ***(다1번으로)***
2. 아니오

가29. 현 직장(일)은 졸업 후 몇 번째 직장입니까?
□ 번째

가30. 졸업 후 일했던 전 직장(일)의 경험이 현 직장(일)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되었음
2. 별로 도움이 안되었음
3. 다소 도움이 되었음
4. 매우 도움이 되었음 ***(라1번으로)***

<미취업자 항목>

나1.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나5번으로)*
2. 없었음

나2. 지금이라도 직장(일)이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2. 하지 않겠음*(나19번으로)*

나3. 지난주에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2.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3.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5. 나이가 맞지 않거나 몸이 불편해서
1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
17. 성수기 대기, 얼마 후 일하게 되기 때문에
18. 육아, 가사
19. 통학
20. 기타 ( )

나4. 지난 6개월 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나19번으로)*

나5. 구직 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개월

나6.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11.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 등록
12.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
13. 취직시험
14. 신문, 잡지, 벽보 등 구인구직정보
15. PC 통신 및 인터넷, 인력 DB
16. 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
17. 학교, 학원 추천
18. 사업체 방문
19. 친구, 친지 소개
20. 자영업 준비
21. 기타( )

나7.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3가지만 고르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2.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
13. 섭부 경험이 없어서
14.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15.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6. 나이가 맞지 않거나 몸이 불편해서
17. 남자나 여자만 원해서
18. 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
19.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20. 자영업 준비부족
21. 기타 ( )

나8. 지난 주에 취업을 위해서 주로 어떤 교육훈련을 하였습니까?
1.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수강
2.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3. 민간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교육훈련
4. 사설학원 수강
5. 입사시험 준비
6. 자격증 취득 준비
7. 사시, 행시, 외시 등 고시 준비
8. 기타 ( )

나9.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비임금근로*(나11번으로)* 2. 임금근로

나10. 원하는 직장(일)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
4. 파견근로

나11.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1. 관리직 5. 농림어업직
2. 전문직 기술직 6. 기능직
3. 사무직 7. 단순노무직
4. 서비스 판매직

나12. 직장(일)의 선택기준은 주로 무엇입니까?
1. 임금 및 보수
2. 전공분야
3. 적성
4. 사회적 인식 및 명성
5. 임금 외 근로조건
6. 업무의 자율성
7. 개인의 성장가능성
8. 기타( )

나13. 원하는 직장(일)은 전공과 일치하기를 원하십니까?
1. 전혀 무관해도 무방
2. 다소 무관해도 무방
3. 대체로 일치해야
4. 반드시 일치해야

나14. 실업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현재 받고 있음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3. 없음*(나18번으로)*

나15.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일

나16.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았던 교육훈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노동부지원 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2. 시군구의 고용촉진훈련
3. 기타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4. 정부지원 양성훈련
5. 개인수강
6. 기타 ( )

나17.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았던 교육훈련기관은 어디입니까?
1.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2. 공공직업훈련기관
3. 민간직업훈련시설
4. 사설 학원
5. 기타 ( )

나18. 최소한 얼마정도의 (세전)소득을 원하십니까?
월평균 □□□□ 만원
연 간 □□□□ 만원
*둘 중 하나만 선택

나19. 졸업 후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1. 있음*(다1번으로)*
2. 없었음 *(라1번으로)*

<졸업 이후 첫 직장에 관한 항목>

다1. 전 직장(일)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다2. 전 직장(일)은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년 □□월

다3.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_____
산업 코드 : □□□
IT산업코드 : □□□

다4.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습니까?
_____

다5.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일의 종류(직업)
_____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 □□□
_____고용직업분류 코드 : □□□□

다6. 전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1.고용주
2.자영자
3.무급가족종사자
(다8번으로)
4.상용
5.임시
6.일용

다7. 전 직장(일)에서의 근무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
4. 인턴사원
5. 공공근로
6. 파견근로

다8. 전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1. 1 4인
2. 5 9인
3. 10 29인
4. 30 49인
5. 50 99인
6. 100 299인
7. 300 499인
8. 500 999인
9. 1,000인 이상

다9. 전 직장(일)은 학교전공과 밀접한 분야였습니까?
1. 전혀 관계 없었음
2. 별로 관계 없었음
3. 다소 밀접하였음
4. 매우 밀접하였음

다10.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전 직장(일)에서의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안되었음
2. 별로 도움이 안되었음
3. 다소 도움이 되었음
4. 매우 도움이 되었음

다11. 전 직장(일)에서 업무의 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적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니오 2. 예

다12. 전 직장(일)에서 회사나 고용보험 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없었음*(다14번으로)* 2. 있었음

다13. 전 직장(일)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일

다14. 전 직장(일)을 그만 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임금이 낮아서
12.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
13. 전공 및 자격과 맞지 않아서
14. 발전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15. 고용이 불안정해서
16. 개인 및 가족적 이유로
17. 직장의 휴·폐업
18. 명예·조기퇴직
19. 정리해고
20.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1.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22. 업무의 자율성이 없어서
23. 기타( )

다15. 전 직장(일)에서 받았던 월평균 (세전)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만원
연 간 □□□□만원
*둘 중 하나만 선택
(라1번으로)

<공통항목 : 가족의 배경>

<table>
<tr><th colspan="2">부모의 학력</th><th colspan="2">부모의 나이</th></tr>
<tr>
<td>라1.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학교졸
5. 대학원졸 이상</td>
<td>라2.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학교졸
5. 대학원졸 이상</td>
<td>라3.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만 _____세
* 사망인 경우는 0으로 기재</td>
<td>라4.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
만 _____세
* 사망인 경우는 0으로 기재</td>
</tr>
<tr><th colspan="2">부모의 직업</th><th colspan="2">소득</th></tr>
<tr>
<td>라5. 현재 아버지의 직업은?
1. 관리직
2. 전문직 ·기술직
3. 사무직
4. 서비스 ·판매직
5. 농림어업직
6. 기능직
7. 단순노무직
8. 무직</td>
<td>라6. 현재 어머니의 직업은?
1. 관리직
2. 전문직 ·기술직
3. 사무직
4. 서비스 ·판매직
5. 농림어업직
6. 기능직
7. 단순노무직
8. 무직</td>
<td colspan="2">라7. 현재 귀하의 총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평균 □□□□만원
연 간 □□□□만원
*둘 중 하나만 선택
(질문 끝)</td>
</tr>
</table>

수탁사업 03-5-1

미래의 직업세계(2003) :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2003년 12월 30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장 호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135-949)
홈페이지: http:// 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등 록 제16-1681호 (1998. 6. 11)
ISBN 89-8436-752-4 94370
89-8436-750-8 (전 5권)

인쇄처 대한인쇄사 (02-2279-783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 연구보고서 내용 문의
전화 : 02-3485-5054 e-mail : hmkim@krivet.re.kr